



# 사랑의교회 특새 1만여 성도들,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



사랑의교회가 지난 1일부터 오는 6일까지의 일정으로 제22차 봄 글로벌 특별새벽부흥회(특새)를 진행하고 있다. 3일 특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날'로 진행됐다. ©사랑의교회

## 1일부터 오는 6일까지 봄 특새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가 지난 1일부터 오는 6일까지의 일정으로 제22차 봄 글로벌 특별새벽부흥회(특새)를 진행하고 있다.

'사는 날 동안 능력이 있으리다'신명기 33:25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는 특새에는 지금까지 매일 새벽 1만여 명이 참석했다고 교회 측은 전했다.

특히 3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날'로 정해 성도들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 주시고, 살려 주옵소서'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했다고 한다. 또 우리나라가

'태평양과 동북아 평화의 모퉁잇돌로 쓰임받도록 기도했다'고

아울러 교회 측은 "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 '좋은 지도자의 복을 주사,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로 쓰임 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고 덧붙였다

오정현牧사는 "이른 새벽 성도들이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가슴이 뭉클하다"며 "역사의 부름 앞에, 시대의 요청 앞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내 인생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를 사모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이번 봄 특새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오 목사는 "메마른 막대기 같은 삶의 형편 속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울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나쁜 것이 없다'라고 선포하며, 실오라기 하나까지도 온전히 내어드리는 한 주간의 기도 헌신을 통해 내재된 생명의 씨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아름답고 선한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하실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함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할 때, 개인적으로, 가정

적으로, 국가적으로 대반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특새 국내 강사는 강준민 목사(새생명전교회), 최병락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 박명수 교수(서울신학대학교), 이용희 교수(가천대학교),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해외 강사는 브라이언 채플 목사(미국 카버넬트신학교 명예총장), 미첼 리 목사(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 제이미 듀 목사(뉴올리언스신학교 총장), 크리스찬 소니아 목사(루마니아교회), 오스 기니스 교수(소명 의 저자), 필립 라이켄 목사(휘튼칼리지 총장). 김진영 기자

# 유산 기부하고 싶은 곳 중 1위가 '종교 단체'

## 목데연, '유산 기부' 관련 한국자선단체협 조사 결과 소개

만 50세 이상 국민의 4명 중 1명가량이 생을 마감할 때 유산을 기부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가운데, 유산 기부 의향 단체로 '종교 단체'가 가장 많이 꼽혔다.

목회데이터연구소(목데연)는 한국자선단체협의회가 지난 2019년 전국 만 50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유산 기부에 대한 인식 조사'의 주요 결과를 최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유산 기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를 물었더니 46%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생을 마감할 때 유산 기부를 할 의향'에는 26%가 '있다'고 답했다.

연령별로 좀 더 세분화 해 보면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50대에서 43%, 60대에서 23%, 70세 이상에서 18%로 나이가 많을수록 유산 기부 의향이 낮아지는 경

향을 나타냈다.

유산 기부 의향자에게 희망하는 유산 사용처를 묻은 결과, '국내 복지사업'이 62%로 압도적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환경 사업' 8%, '의료 사업' 6%, '국제 구호 사업' 5%, '교육 사업' 5% 순이었다.

'유산 기부 의향이 있는 구체적 단체'에는 가장 비율이 높은 '모름/무응답'(43%)을 제외하면 '종교 단체'가 14%로 가장 많이 꼽혔다. 다음으로 '고아원/아동단체' 7%, '교육단체' 5%, '장애인 단체'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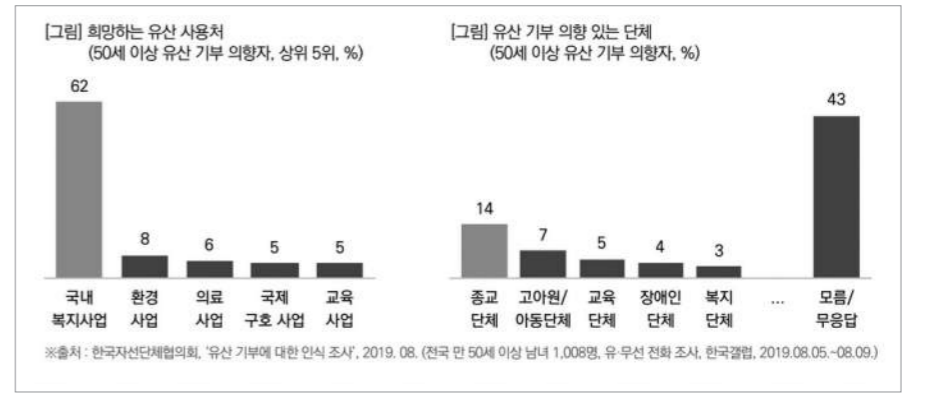
'복지 단체' 3% 순이었다.

목데연은 "종교 단체에 유산을 기부하려는 의향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고 했다.

또 "여기서 '모름/무응답'이 43%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유산 기부의향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기부처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하지 않은 것으로, 향후 단체별 적극적 홍보에 크게 영향을 받을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목데연은 한국교회지도자센터가 지난 2022년 9월 전국 담임목사 434명을 대상으로 했던 '목회환경과 목회 실태 조사'에서 '목회자 노후'와 관련된 결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담임목사들이 은퇴 후 가장 걱정하는 부분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60%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건강' 17%, '은퇴 후 교회생활/신앙생활' 12%, '가족, 인간 관계' 4%가 그 뒤를 이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은퇴 후 경제적 준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43%만이 준비하고 있다(준비하지 못함은 55%)고 응답해 일반 국민은 은퇴 준비율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목데연은 전했다.

또 목회자가 노후의 경제적 준비를 못하는 이유(1+2 순위)로 '경제적 여유 없음'이 92%로 가장 높았고, 이어 '노후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 없음' 47%,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믿음' 29%, '노후 준비에 대한 지식과 이해 부족' 24%, '노후를 신경 쓰면 사역에 방해' 3% 순이었다.

목데연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믿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많이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경제적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겨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이라 하겠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 한국기독교교양학회, 서울신대 박영식 교수 옹호하는 성명 발표

한국기독교교양학회(회장 민경식 박사, 이하 학회)가 최근 서울신학대학교(총장 황덕형, 이하 서울신대) 박영식 교수(사진) 징계와 관련, 성명을 통해 목소리를 냈다.

학회 측은 먼저 "(지난) 3월 학교법인 서울신학대학교 백운주 이사장은 동대학교 교양교육원 박영식 교수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통해 그에 대한 중징계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 지시 이전에 박영식 교수의 저서 '창조의 신학'을 포함한 그의 창조신학이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교단의 창조론과 배치된다는 일부의 주장이 있었고, 이에 2022년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조사위원회가 열렸다. 조사위원회가 요청하여 박영식 교수가 작성한 논문에서도 충분히 밝혀졌듯 그의 창조신학은 서울신학대학교와 성결교회의 주요한 목회자와 신학자인 이명직 목사와 조종남 교수의 가르침을 온전히 계승하고 있다"며 "그

의 창조신학은 그가 속한 대학과 교단을 넘어 우리나라 다른 개신교 교단 신학자들의 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의 신학이 징계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의 신학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일부가 그의 신학을 왜곡한 결과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성실한 신학자의 연구 결과가 일부 사람들에게 의해 곡해되어 뛰어난 신학자를 징계하려는 데에까지 이른 데에 대해 깊은 유감과 비통한 마음을 표한다"며 "이는 신학적 자율성과 독립성, 그리고 탁월성을 자랑해 오던 서울신대의 역사와 배치될 뿐 아니라 그를 통해 도움을 받던 다른 개신교 학자들에게도 큰 충격이다. 서울신대뿐 아니라 성결교회 목회자들, 나아가 개신교 학자 모두에게 이에 대한 우리의 염려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탁월한 신학자가 소수의 왜곡으로 인해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박영식 교수의 창조에 관한 신학은 자연세계에 대한 현대과학의 다양

한 해명들에 맞서 창의적이고 비판적으로 논쟁하면서 하늘과 땅의 창조자를 고백하는 기독교 창조론의 핵심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밝히고, "이것은 과학과 이성을 신앙의 영역에서 배제하려 했던 과거 교회 역사 속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창조적인 신학을 위한 노력이다. 이 시대에 적절한 창조신앙은 이처럼 시대의 정신과 진지하게 대화하는 가운데, 그리고 신앙의 전수자인 신학자들 사이의 차이를 학문적 논의를 통해 형성되어 왔고, 박영식 교수는 바로 신학자 본연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간 쌓아왔던 기독교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교단의 신앙 전통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면서 소수의 곡해를 잘못 수용하지 않기를 호소한다. 진리를 향한 순수한 열정과 진지한 노력으로 인해 부당하게 고초를 당하고 있는 박영식 교수에게 깊은 위로와 지지를 보낸다"며 "하나님의 진리를 향하여 걸어가는 모든 분에게 이 고통스런 소식을 알리고 또 도움을 호소한다"고 했다. 박용국 기자

# 행크, Vote For Christ 성경적 정치참여 프로젝트 진행

기독교청년단체 행동하는크리스천(이하 행크)에서 4.10 총선을 맞아 'Vote For Christ'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VoteForChrist 프로젝트'는 기독교인들의 성경적 정치참여를 위해 고안되었으며, 후보자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기독교인들이 성경적 가치관에 부합하는 후보자를 찾아 올바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최종 목적이 있다.

https://VoteforChrist.kr/은 기독교 정치참여 플랫폼을 지향하며, 그리스도를 위한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선거후보 정보를 제공하는 참여형 커뮤니티 웹사이트이며, 총선 전 254개 지역구 후보에 대

한 프로필 정보와 함께 성경적 가치관 부합도 검증에 의해 주요 범인 발의 이력 및 후보자 최신동향 정보가 제공된다. 이용자는 후보자에 대한 평점 및 크리스천 리뷰를 작성할 수 있다.

한편, 행크는 Vote for Christ 소책자도 제작했다. 단체는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의 편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투표해야 한다"며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한 투표를 할 수 있는가? 성경적인 정치 참여를 희망하는 크리스천을 위해, 행크LAB의 첫번째 출판물인 'Vote for Christ' 소책자를 소개한다"고 했다.

소책자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투표해야 하는가? ▲정치참여는 하나님의 관심인가? ▲정치 참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정치 참여의 한계 ▲성경적 정치 참여 방법 ▲기독교 정치참여 플랫폼 소개 ▲VFC 투표 체크리스트 ▲21대 국회 반기독교적 5대 법안 요약 등으로 구성된다.

구매처는 <https://smartstore.naver.com/hanklab/products/10124268820>이며, 가격은 권당 5,000원(최소 구매수량 2권, 10권 이상 구매 시 30% 할인)이며, VFC후원은 <https://go.missionfund.org/voteforchrist>로 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카카오톡([http://pf.kakao.com/\\_xgTxJJG](http://pf.kakao.com/_xgTxJJG)) 구독, 이메일([hank.cia.korea@gmail.com](mailto:hank.cia.korea@gmail.com)), 010-7359-1324(문자만 가능)로 하면 된다.

정지동 기자

## 레티놀 4X로, 단 7일만에 속부터 짝 차오르는 밀도탄력

아이오펜 레티놀 슈퍼 바운스 세럼

**7일 만에 속부터 차올라  
4주 후 어려운 피부 나이**

**10.6%**  
볼 탄력 개선

**12.5%**  
모공부위 피부탄력

**12.2%**  
피부 탄력증 개선

RETINOL SUPER BOUNCE SERUM  
|  
RETINOL 4X  
**IOPE**

오늘부터 7일 후, 달라지는 피부 변화를 경험하세요!

**IOPE**

구매 문의 | 080-023-5454, 카카오톡 '아이오펜' 채널 판매처 | 전국 대리점 및 올리브영 매장  
| \*사용 7일 후, 미세 침묵 시술 (사출) 전, 2023.01.25~2023.03.31 (사출) 전, 2023.01.25~2023.03.31 (사출) 전, 2023.01.25~2023.03.31 (사출) 전

# 총선 후보 108명에게 물었더니... 81% “차별금지법 반대”

### 진평연·거룩한방파제·악대본, 후보 대상 정책질의 결과 발표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에 나서는 후보자들 중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국민의힘 후보 10명 중 9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10명 중 5명이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평연, 거룩한방파제, 17개광역시도와 법대본부(악대본)는 총선 후보들로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의 '성적지향 차별금지' 삭제,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고 그 답변을 취합해 최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이 설문은 지난달 23일부터 4월 1일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 전체(952명)에게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실시했다. 이들 중 108명이 답변했다고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국회의원 선거

후보로 21개 정당 699명, 비례대표 38개 정당 253명이 등록했다.

설문 내용은 ①“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②“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 차별금지' 문구를 삭제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③“2024년 1월에 성전환수술 없이도 성별정정 판결이 가능하도록, 대법원이 수술 확인서 제출 지침의 폐지를 검토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성전환 수술이 없는 성별정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이다. 답변은 반대·유보·찬성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의 차별금지 종류에는 국가, 민족, 인종과 함께 동성애 양성애 등을 포함하는 성적지향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현재 법원행정처는 현행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0호 '성전

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에서 성별정정 신청자에게 성전환 수술을 포함한 의료적 조치를 요구하지 않도록 지침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총 108명 중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는 81%, 찬성은 6%, 답변 유보는 13%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적지향 차별금지 삭제는 삭제 찬성이 63.2%, 삭제 반대는 9.4%, 답변 유보는 27.4%였다.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 정정에 대한 성별정정 반대는 72%, 성별정정 찬성이 5%, 답변 유보가 23%였다.

정당별 정책질의 결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반대는 국민의힘이 91%, 더불어민주당이 53%, 개혁신당이 67%, 새로운미래와 자유민주당과 자유통일당은 100%로 조사됐다. 반대로 제정 찬성은 녹색정의당과 진보당과 노동당이 100%였다.



제22대 국회의원 후보자 정책질의 답변 발표 기자회견 주최 측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진평연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 차별금지 삭제에 대한 찬성이 국민의힘 76.6%, 더불어민주당 20%,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33%, 자유민주당과 자유통일당 100%였고, 반대는 녹색정의당과 진

보당과 노동당 100%로 나타났다.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정정에 대한 찬 반대는 국민의힘 79%, 더불어민주당 40%, 개혁신당 66.7%, 새로운미래와 자유민주당과 자유통일당 100%였다. 찬성

은 녹색정의당과 진보당과 노동당 100%였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의 성적지향·차별금지 삭제,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 여부에 대한 정당별 주요적인 의견에 반대되는 입장을 밝힌 후보자들도 있었다고 주최 측은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대전 중구)·장종태(대전 서구갑)·박윤국(포천시 가평군) 후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인권위원회의 성적지향 삭제 찬성,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정정 반대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김윤(광주 서구을)·김형석(곡성군 구례군갑)·김삼화(서울 동작구을)·이성심(관악구을) 후보는 차별금지법·인권위원회의 성적지향·성전환수술 없는 성별정정에 대해 모두 답변 유보로 응답했다.

한편, 이 설문을 실시한 3개 단체는 각 홈페이지에 결과를 게시할 예정이다. 노형구 기자

## 한국VOM “기독교 핍박 상황 대비 지하 신학교 과정 개설”

한국 순교자의 소리(한국VOM, 대표 현숙 폴리, CEO 에릭 폴리)는 자체 운영하는 '지하 신학교'가 일찍이 한국 교회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신학교라고 전했다. 이 신학교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잘 이끌고 나가도록 훈련시키기 위해 준비했다고 한다.



한국VOM 에릭 폴리 목사와 현숙 폴리 대표가 지하 신학교를 인도하고 있다. ©한국VOM

한국VOM CEO 에릭 폴리 목사는 “현재 한국 신학교들은 교회를 점점 더 적대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교회를 인도하고 사역해 나갈지에 대한 방법은 거의 훈련하지 않는다. 순교자의 소리 '지하 신학교'는 기독교를 제한하거나 심지어 기독교인이 되는 게 불법인 전 세계 70여 개 나라에서 교회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사용된 훈련을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제공한다”고 했다.

에릭 폴리 목사에 따르면, 이 '지하 신학교'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에게도 열려있다. 에릭 폴리 목사는 북한과 중국 및 중동을 예로 들며 “기독교 박해가 심한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목회자가 아닌 일반 성도들이 교회를 인도한다. 그런데도 이런 나라에서 교회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나라 기독교인들이 적대적인 환경에서도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도록

은밀한 훈련법을 개발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에릭 폴리 목사는 한국의 문화가 기독교에 대해 점점 더 편협해지고 상황에서 교회는 국가의 종교적 제약을 받는 상황이 닥칠 때 대비할 훈련 방법 개발에 노력을 부리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한국 교회는 질병 확산의 주범이라며 대중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면서 교회들은 코로나 이전의 운영 방식으로 거의 돌아갔고, 다시는 그러한 규제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며, 대부분 정치적 힘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나 한국 교회나 교단, 신학교 중 종교에 대한 제약이 삶의 일부가 되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고 질문하는 곳은 거의 없다”고 했다.

에릭 폴리 목사는 지하 신학교에서 위 질문에 대한 해답이라고 전했다. 한국VOM CEO 에릭 폴리 목사와 현숙 폴리 대표가 강의하는 지하 신학교는 총 6개월 과정이다. 강의는 월 1회 1박 2일로 편성돼 있다. 신학교 참가자는 전 세계 핍박 받는 성도들에 관한 영상 자료도 추가로 접할 수 있다. 장소는 경기도 포천시, 전라북도 무주 민간 시설로 참가자는 선택할 수 있다. 매일 모임은 금요일 오후 7시에 시작해서 토요일 오후 5시에 끝난다. 6개월 동안 수강료는 50만 원이다. 여기에는 식비와 숙박비가 포함돼 있다. 첫 번째 모임은 포천에서 4월 12~13일, 무주에서 4월 26~27일에 열린다.

에릭 폴리 목사는 6개월의 지하신학교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사도 시대부터 개신교 종교 개혁자들, 그리고 초기 한국 기독교인들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증언해 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하고 신실한 6가지 신앙고백을 매달 하나씩 배울 것이라고 했다.

에릭 폴리 목사는 “지하신학교는 핍박이 왔을 때 어떻게 교회로서의 기능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교회 지도자들에게 가르치는 학교다. 위대한 신앙인들의 원

동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신실한 고백이다. 보통 사도적 선언 혹은 사도적 신앙 고백이라고 부르는 이 고백은 핍박에

대응하는 교회의 주요 방어 수단이었다”고 했다.

이어 “디모데후서 1장 14절은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를 지키는 것이 모든 기독교인과 교회의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말한다. 오늘날, 한국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하고 신실한 고백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릭 폴리 목사는 한국 정통 교단에 등록된 개신교 교회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지하 신학교에 등록할 수 있다고 했다. 관심 있는 사람은 순교자의 소리 정릉 사무실(02-2065-0703)로 문의하거나 이메일(info@vomkorea.com)로 질문을 보내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노형구 기자

## 울릉군기독교연합회, 부활절연합예배 성료

울릉군기독교연합회(회장 최경훈 목사)는 예수 부활을 기념하는 2024 울릉군 부활절연합예배를 지난달 31일 울릉한마음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했다.



행사 현장의 모습. ©울릉군기독교연합회

“부활의 빛으로 다시 하나 되게 하소서”를 주제로 열린 이번 연합예배는 울릉도 지역 기독교 목회자와 교인, 남한권 울릉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릉제일교회(담임 정재혁 목사) 주관으로 열렸다.

연합예배는 울릉군기독교연합회 헤세드찬양단의 경배와 찬양, 평신도부회장 최대봉 장로(신흥교회)의 기도, 침례교단 여성교회장 이지향 집사(열린교회)의 성경봉독, 그리고 연합성가대의 찬양 등의 순서로 열렸다.

최경훈 목사(태화침례교회)는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란 주제로 설교했으며,

울릉군기독교연합회무용사역 팀과 공군 울릉기지교회장병 팀의 무용과 특송으로 예수의 부활을 경배했다.

울릉군기독교연합회는 부활절연합예배를 비롯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현재 울릉군기독교연합회는 침례교단 소속 교회 17곳과 예장 통합 8곳, 예장 합동 9곳, 예장 고신 3곳, 감리교단 2곳, 순복음교단 2곳 등 교회 35곳이 속해 있다. 노형구 기자

## 산청군기독교연합회, 이웃돕기 성금 산청군에 전달

산청군은 최근 산청군기독교연합회(회장 김상은 목사)와 산청군 성서화운동본부(본부장 이지은 목사)가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성금한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돼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 예정이다.

김상은 목사는 “부활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

라는 마음에서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산청군 이승화 군수는 “나눔 실천을 통해 어려운 계층에게 잘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노형구 기자

사람을 연결하고  
시간을 연결하고  
공간을 연결하는

**지금 이 순간도  
LX는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래지향 에너지 LX인터내셔널 | 글로벌 스마트 빌딩 LX판토스 | 프리미엄 엔터테인먼트 LX하우시스 | 신소재 개발 LX MMA | 차세대 반도체 LX세미콘 | 유리 솔루션 LX글라스

**LX**  
LINK FOR NEXT

# “부활 신앙에는 세 가지 의미 있어”

### 2024 은혜한인교회 부활주일 연합예배, 한기홍 목사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자”

2024년도 부활주일인 3월 31일(주일)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는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자”는 말씀으로 주님의 부활을 기념했다.

◆세 가지 부활신앙: 역사적 부활, 종말론적 부활, 현재의 부활

한기홍 목사는 부활 신앙이 세 가지가 있다며, “첫째는 역사적 부활을 믿는 신앙이다. 2천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다. 그 역사적 증거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두번째는 종말론적 부활을 믿는 신앙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부활하는 것을 믿는 신앙이다(살전 4:16). 세번째는 현재 부활을 믿는 신앙이다. 예수님은 3일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을 믿는 신앙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 분명하게 주님은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다”고 서두를 뒀다.

그는 만일 우리가 믿는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고전 15:17-19, ‘그리스도께서 다시 산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승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리라’)이며,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하고 헌신하는 것이 모두 헛되다. 목숨까지 내 놓고 순교하는 사람도 있다. 예수의 부활하심이 없다면 그 순교는 정말 헛된 것이다. 예수를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은 정말 불쌍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 회개하고 헌신하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기홍 목사(사진 왼쪽)는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자”는 말씀으로 주님의 부활을 기념했다. ©은혜한인교회

◆부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힘  
“부활신앙을 가지면 첫째, 절망에서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게 한다.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절망할 게 너무 많다. 절망스러운 일이 너무 많다. 예수님은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

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요 14:1) 어찌 침례식을 마치고 장례식을 접례했다. 한 청년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꿈 많고 재능 많은 아들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된 가정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장례예배를 하는데 집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인사한다. 사랑하는 아들은 천국에 갔다. 재성이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 자리에 많이 왔는데 꼭 예수 믿고 내일이

부활주일인데 교회에 갔으면 좋겠다. 그게 천국에 간 재성도 너희들을 향해 그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육신적으로는 힘들지만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부활소망을 가졌기 때문이다.”

◆부활, 불신에서 확신으로

“두번째, 부활신앙은 불신에서 확신으로 다시 일어나게 한다. 즉, 불의에 대하여 의가 승리한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 진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다. 불의는 허상이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았는가. 대제사장과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때 사탄은 승리했다고 생각했으나 예수님은 부활했다. 불의가 이길 수 없다. 진리가 승리한다.”

“성은 하나님께 정해주시는 것이다. 남자가 결합해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주시고 자녀를 낳게 해주신 것은 큰 축복이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악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데서 타락이 시작된다. 부활을 믿을 때 불신에서 확신으로 일어설 수 있다.”

◆부활,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기는 능력

“세번째, 부활신앙은 죽음에서 영생으로 다시 일어나게 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사는 것이다.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었고,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다. 이화여대 첫번째 종장이었던 김활란 박사가 세상을 떠날 때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했다. ‘내가 죽을 때 절대로 애도하는 장례식을 하지 말라. 마지막 그 깊은 정말 웅장하고 기쁨이 충만한 음악예배로 드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천국 임성 축하 예배로 드려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먼저 간다면, 이렇게 부탁한다. ‘난 예수가 좋다고 찬양팀이 꼭 불러달라. 그리고 ‘웃을 있는 나라를 울동팀이 댄스를 해달라. 어떻게 장례예배에도 기뻐할 수 있을까? 부활신앙을 가진 것으로 가능하다.’ 주디 한 기자

# “성경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

### 2024년도 베이커스필드 교계 연합 부활절 수련회 개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말씀에 근거해 있다

세상을 바꾸는 금융

증권사  
**PB**

알면  
좋아요

한 명쯤은

비대면 프라이빗  
자산관리 서비스

KB증권  
PRIME CLUB

- ☑ 자산관리 규모 제한 없이!
- ☑ 누구나 전화나 특으로 똑똑!

PRIME 센터  
무료 자산관리 상담  
1566-0055

투자할 땐 꼭  
**개비증권**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3627호(2023.09.26~2024.09.25) \*투자자는 이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당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은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유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자산 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 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일부 또는 전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국내 주식 거래 시 수수료(비대면 계좌) HTS/종목당 0.015%/모바일 0.12%,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 거래 이자율은 비대면 계좌(또는 위탁수수료 혜택계좌)가 영연전 개성 계좌보다 더 높게 적용됩니다. (비대면 계좌 최대 연 9.1%~최소 연 5.5%, 일반 계좌 최대 연 9.1%~최소 연 4.9%) \*PRIME CLUB 1만 원 결제 유형(자동이체)으로 가입 시 월 1만 원 이용 요금 증감되며, '프라임클럽' 매일 1종목 지정 이벤트에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라임클럽' 매일 1종목 지정 이벤트 공지 참조) \*PRIME CLUB 무료 회원 가입 시 별도 비용 없이 계속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KB증권

베이커스 필드 지역 교계가 연합해서 2024년도 부활절 연합 예배를 3월 31일 주일 아침 6시에 가주목양교회(안신기 목사)에서 드림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목상했다.

안신기 목사(가주목양교회)의 사회로 시작된 연합예배는 찬송가(164절 예수 부활했으니) 찬양, 고의용 목사(사랑의교회)의 대표기도, 이윤형 목사(산소방교회)의 설교 순으로 진행되었다.

“성경 말씀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고린도전서 15:3-8)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이윤형 목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이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씀을 시작했다. 그는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창세기 3장 아담의 타락 후 가죽 옷을 해 입하신 사건, 뱀에게 하신 예언,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나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삭을 반제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숫양,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킬 때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게 하시고, 그 어린양의 고기를 먹도록 명령하신 것 등을 하나씩 짚어 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돌아보게 했다.

“하나님이 죄인 아담에게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신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뱀에게 내린 저주,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저주의 말씀, 이삭을 반제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숫양은 곧 예수님이었다. 세상의 모습인 애굽

에서 이스라엘에서 탈출시킬 때,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을 먹게 한 것은 고난 당할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 7:14)는 말씀에서, 성육신을 약속하셨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사 9:6), 이사가 53장 고난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다.”

그는 부활에 대한 예언을 사편 16:10이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 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부활하려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죽어야 한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 있으며 부활을 경험할 수 없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라’고 하셨다.”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십자가 보혈의 피를 매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죄인인가? 우리는 세상을 너무 많이 사랑하고 우리 목숨을, 우리 자녀를, 하나님 보다 더 많이 사랑한다. 이것은 당연한 죄이다. 그 주님의 피를 바르고, 내 자신을 쳐서 주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자녀가 되길 원한다. 우리는 말씀을



이윤형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교회 측 제공

통해서 매일 우리 자신에게 상고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온전함을 받았고 치유함을 받았다. (천하 나 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벰 2:24)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다.”

이윤형 목사는 우리가 세상 잡념이 많고 염려가 많아서 이 부활의 능력과 대속의 사건을 다치게 믿고, 말씀을 둔하게 쫓아간다고 경계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해서 많은 영혼들이 죽어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아침이 되길 바란다. 이 부활의 아침,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신부의 세마포, 곧 거룩함과 경건한 행실과 거룩한 행실을 준비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지 원한다. 부활절 이후, 오직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베이커스필드 모든 교회들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한다.

폐회찬양으로 “여기에 모인 우리”를 부른 후 조태준 목사가 축도함으로 2024년도 부활절 베이커스필드 교계 연합 부활절 예배를 모두 마쳤다. 주디 한 기자

# 총 6지역서 모였던 뉴욕장로교회, 베이글 친교로 기쁨 나눠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박대규 목사)가 3월31일 새벽 6시 뉴욕 각 지역에서 연합으로 부활절연합예배를 진행한 가운데 플라싱 1,2,4 지역과 코로나, 우드사이드, 후레시메도우 등 총 6개 지역에서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던 뉴욕장로교회(담임 김학진 목사)에서는 예배 후 베이

글로 친교를 나누면서 기쁨을 더했다.

이날 뉴욕장로교회는 베이글과 달걀, 부활절 디아 등을 준비했고 참석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함께 부활절 인사를 건네면서 서로 덕담을 나눴다.

이날 예배는 박준열 목사(부활절연합예배 준비위원장)의 인도로 박시훈 목사

기도, 연합성가대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찬양, 이조엔 권사 성경봉독, 방지라 목사 말씀, 안경순 목사 헌금특송, 이정식 선교사 헌금기도, 정숙자 목사 광고, 최창섭 목사 축도 등의 순서로 드렸다. 방지라 목사는 “잠자는 자들의 첫열매(고전 15:20-22)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대원 기자



뉴욕장로교회에서 드린 부활절연합예배에서 제공된 베이글과 부활절 디아들. ©주최 측 제공



뉴욕장로교회에서 드린 부활절연합예배에서 참석한 목회자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 ©주최 측 제공

# “과학, 심도 있고 폭넓게 이해할수록 하나님의 영역 발견”

## 2024 씨드교회 부활주일 예배 “죽어도 살겠고”

씨드교회 권혁빈 목사는 2024년 부활 주일을 맞아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25-26)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부활은 2천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을 믿는 개념론적, 교리적 차원의 믿음이나,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을 믿는 것에 머물지 않고, “나중에 얻게 될 영원한 궁극적 부활이 삶 속으로 스며드는” 현실적인 것이며, 이 부활은 인간의 구원을 넘어, 로마서 8장의 피조물의 구원의 문제까지 이따가 있다며, ‘환경 문제가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선포했다.

“최근 과학에 관심이 생겼다. 결정적 이유는 과학을 알면 알수록 신앙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과학을 좀더 심도있고 폭넓게 이해할수록 하나님의 영역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과학, 사회적 영역 자체가 창조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흔적을 궁극적으로 담아야 하는 것이다. 제가 결정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임용성 장로님 덕분이다. 이 분은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미국에서 양자역학으로 박사학위를 따신 분일 것이다. 그분이 양자역학을

공부할수록 신앙과 만나는 부분이 많다고 하신다. 최근에 이분이, 빛과 빛이 세계 부딪히면 입자가 생긴다. 양자역학에서, 빛은 파동이면서 입자이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시는데, 양자역학을 적용하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된다.”

“인더스텔라에 대해 다룰 때, 블랙홀과 웜홀에 대해 잠깐 나는 적이 있다.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서 어떤 지점에 가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간의 차원이 끝난다고 한다. 그리고 다른 차원의 시간으로 넘어간다고 한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시간이 끝나고 그 이후에 새로운 차원의 시간이 열릴 수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어떻게 죽어도 사는가? 그런데, 우리의 죽음 자체가 생명과 이어져 있고 영원한 세계가 우리의 죽음과 이어져 있음을 이 논의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부활을 믿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뛰어넘고 다시 사셨다는 그 승리의 이야기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신 것



권혁빈 목사는 “죽어도 살겠고”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부활의 의미를 되새겼다. ©씨드교회

이다. 그리스도의 삶에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삶도 그분의 부활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막지 않으셨다. 또 지금도 세상 가운데 죽음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관점, 생명의 관점 속에서 그 죽음을 보고 계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다른 말로, 어떤 실패와 절망이든 하나님께서는 뛰어넘을 수 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다.”

“성경의 많은 인물을 보라.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인물들을 회복해서 사용하신다. 예를 들면, 모세, 사람을 죽였고 왕국에서 쫓겨났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 나는 실패자야. 자신에게 절망했던 모세를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출애굽의 리더로 삼으셨다. 부활절을 맞이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중의 하나가 베드로이다. 배신자인 베드로를 놀라운 사도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

다. 죄인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 이것이 부활의 도식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있다. 죽음도 바꾸는 예수님의 능력 앞에 우리에게 어떤 회복도 가능하다.”

“우리의 상황은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실패는 그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 우리의 죽음도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다. 아이로의 딸이 죽었다. 모두 울고 있었다. 예수님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라고 하신다. 어떤 죽음도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다. 이것은 절망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설교를 만족스럽게 했다고 느끼는 적은 매우 드물다. 그러다 설교를 마치면, 월요일 화요일이 계속 힘들다. 그러다 주중에 리더들이 보낸 보고서를 읽었다. 그 말씀을 살아내는 이야기가 너무 많은 것이다. 저의 죽었던 설교가 부활하더라. 저의 부족한 설교도 여러분이 부활시킬 수 있다.”

“부활을 믿을 때 많은 경우 2천 년 전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안 믿겨지지만, 믿어야지, 그정도 수준이다. 즉,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부활을 믿는다.

어떤 분들은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을 믿는다. 이것만 믿는 것을 부활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나중에 우리가 얻을 영원한 궁극적 부활이 내 삶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한다. 우리 부활 신앙은 굉장히 현실적인 것이다. 개념적인 것,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이다.”

“그 부활 중의 하나가 환경 문제이다. 롬 8:19-21에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나온다. 피조물의 탄식, 이 말씀이 그냥 문자인가, 지금 우리가 실제로 듣고 있는가? 지구 온난화, 해수면 상승, 지구 평균 온도 상승, 동식물의 멸종을 피조물의 탄식 소리로 듣고 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기업은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환경이 파괴되었다. 인간의 죄악으로 피조물이 속박된 상태에 있다.’

“피조물의 해방,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인간의 구원만 생각한다. 그러나 세상의 피조물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다. 인간의 구원은 피조물의 구원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환경문제는 단지 사회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 구원받은 이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주디 한 기자

## 손요한 목사 “부활의 증인으로 거침없이 살아가자”

### 올림피아 레이스 지역 2024 부활절 연합 예배 드려

올림피아 레이스 지역 목회자 연합회 (회장 손요한 목사)가 주최한 2024년 부활절 연합예배가 지난 3월 31일 오전 6시 올림피아 하나장로교회에서 진행됐다.

연합회 총무인 이동진 목사(큐리오스 교회)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정용교 목

사(새시온 침례교회)의 기도예배 이어 연합 찬양대가 은혜로운 찬양을 불렀으며, 박용훈 목사(은광교회)의 성경봉독 후, 손요한 목사가 설교했다.

“부활을 살아감시다!”(눅24:1-12)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손요한 목사는 부활은 성경을 통해 미리 예언된 것이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임을 강조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삶 속에서 예수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자고 독려했다.

손 목사는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과는 달리, 많은 순교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으나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았다”며 “성령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된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의 증인

로 거침없이 살아가자”고 전했다.

이날 예배에서는 연합회 목자들이 함께 헌금 찬양을 불렀으며, 안영근 목사(은혜와 평강교회)가 봉헌 기도를 했다.

이날 연합예배는 박춘식 목사(한빛장로교회)의 축도로 마쳤으며, 하나장로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아침으로 지역 성도들이 함께 즐거운 친교를 나눴다.

김민선 기자



올림피아 레이스 지역 2024 부활절 연합 예배에서 설교하는 손요한 목사 ©주최 측 제공



올림피아 레이스 지역 2024 부활절 연합 예배에서 찬양하는 연합 찬양대 ©주최 측 제공

## 베이커스필드 ANC 온누리교회, 성경과 함께한 부활 주일



베이커스필드 ANC 온누리교회 부활주일을 기념하며. ©교회 측 제공

베이커스필드 ANC 온누리교회(담임 박성호 목사)가 부활 주일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교회는 사순절 기간 아이들을 포함한 전교인이 매일 한 구절씩 총 40개 구절을 외우는 Bible Memorization Challenge 행사를 진행했다. 이에 교회는 부활주일 오후에 전교인들이 모

여 쭙뭙한 상품과 함께 성경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며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회는 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드리는 패밀리 워십으로 자녀들이 함께 예배 순서(찬양인도, 기도, 특송 외)를 맡아 진행하며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다.

김민선 기자

굿네이버스

# Good Neighbors effect

소외된 이웃을 향한 당신의 관심이 따뜻한 마음을 담은 당신의 손길이 세상을 위한 좋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세상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난 33년간 전 세계 좋은 이웃들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Good Neighbors Effect 입니다.

굿네이버스와 함께 세상에 좋은 변화 만들기

굿네이버스는 1991년 한국에서 설립되어 국내, 북한 및 해외에서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입니다.

# “美, 러시아에 ‘크로쿠스 공연장 테러’ 구체 정보 줬다”

### WP보도… 테러 발생 2주 이상 전, IS 공격 가능성 확신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 공연장 테러가 발생하기 2주 이상 전에 미 정부가 러시아 당국자들에게 테러가 벌어질 크로쿠스 공연장이 표적이 될 수 있음을 폭 짚어서 경고했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미국이 구체적으로 테러 가능성이 있는 곳을 지목한 것은 이슬람국가(IS)가 테러 공격을 준비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미국의 경고가 일반적인 것이었다는 러시아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WP는 또 미국이 크로쿠스 공연장에서 테러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목했는데도 러시아 당국이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20년 사이 최악의 테러에 대해 이슬람 국가-호라산이라는 조직이 공개적으로

자신들 소행임을 밝혔고 미 당국자들도 이 단체를 공개 지목했으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책임을 전가하려 시도하고 있다.

푸틴은 테러 발생 3일 전에 미국의 경고가 “명백한 협박”이라면서 “우리 사회를 겁주고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세르게이 나리시킨 러시아 대외정보국(FSB) 국장도 2일 미국이 제공한 정보가 “너무 일반적이어서 우리는 이번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경고에 따라 러시아가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 동영상에 따르면 범인들은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았다. 러시아 매체들은 특수 경찰부대가 테러 발생 1시간 뒤까지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으며 도착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 공연장에서 테러가 일어난 후 발생한 화재 현장의 모습. ©현지 영상 캡처

한 뒤에도 30분이 지나 테러범들이 모두 도주한 뒤에야 진입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외국에 대한 테러 공격 정보를 제공하면서 구체적 장소까지 지목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미 당국자들이 밝혔다. 정보 소스를 노출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러시아에 구체적 정보를 제공

한 것은 러시아 거주 미국인들까지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지난달 7일 모스크바 주재 미 대사관이 “모스크바에서 극단주의자들이 조만간 콘서트 등 대규모 모임을 공격할 것이라는 정보를 갖고 있다”면서 미국 시민들에게 “48시간 동안 사람이 모이는 곳을 피하라”고 공개

경고했다.

미 정부가 대사관 발표 하루 전 이 정보를 러시아에 제공했다고 미 당국자들이 밝혔으며 나리시킨 국장은 “미 정보기관들이” FSB에 정보를 줬다고 밝혔다.

크로쿠스 공연장 테러 가능성 경고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당초 심각하게 받아 들였다는 징후가 있다. 당시 경고에는 유대교 회당에 대한 공격 가능성까지 포함 돼 있었다. 러시아가 정보를 받은 다음날 FSB가 모스크바 유대교 회당에 대한 IS의 공격을 저지했다고 밝혔다.

크로쿠스 공연장에서 일하던 이슬람 카릴로프(15)는 크로쿠스 직원들이 미 대사관의 경고가 있는 날 며칠 뒤 테러 공격 가능성에 대해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 당국자들은 러시아 보안 당국이 미국의 정보가 부정확하다고 판단해 현장의 보안을 강화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푸틴은 지난달 19일 보안책임자들과

회의에서 테러 경고에 대해 “서방 공식 기관들이라는 것들의 행태”라면서 “잘 알고 있을 것이기에 길게 말하지 않았다”고 조롱했다.

푸틴은 FSB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우크라이나에서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테러 용의자들을 체포한 뒤에도 이들이 우크라이나로 도주하려했다면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고용한 사람들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배격했다.

미국은 과거에도 러시아에 테러 가능성 정보를 제공한 적이 있으며 러시아가 이에 대해 감사를 표시한 적도 있다. 푸틴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2017년과 2019년 미국이 정보를 제공해 상트 페테르부르크에 대한 테러 공격을 막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감사를 표시했다.

강영진 기자

## 美플로리다 대법원, ‘임신 6주 낙태금지’ 손 들어줘

### 11월 대선서 투표 여지 남겨… 유권자 표심 영향 주목

미국 플로리다 대법원이 임신 6주 차에 중절(낙태)을 금지하도록 한 주법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향후 임신중절 권리를 투표에 부칠 수 있게 해 유권자 표심 향방이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 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주 헌법상 사생활 보호가 임신중절 문제까지는 확대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신 6주부터 중절을 금지하는 주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

다. 앞서 플로리다에서는 지난해 봄 6주 이후 임신중절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날 판결에 따라 해당 법안은 30일 이내에 효력을 갖게 된다. 기존 플로리다에서는 임신 15주까지는 임신중절이 허용됐다.

플로리다는 보수적인 남부 주 중 그나마 그나마 임신중절이 수월한 주로 꼽혔다. 이에 텍사스 등에서 찾아오는 이들로 지난 2년 동안 임신중절 시술 건수가 크

게 증가했는데, 이날 판결은 이런 경향에도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이날 판결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진영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임신중절 문제를 주요 의제로 부각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로 대 웨이드 판결 전복 이후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WSJ은 이날 플로리다 대법원 결정을 두고 “플로리다에서 임신중절을 둘러싼 투쟁이 상당히 고조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법원은 이날 별도의 판결로 주 헌법에 임신중절을 명시하는 내용

을 11월 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별도의 판결에서 플로리다 대법관들은 4대 3으로 태아가 미숙아로 태어나도 생존이 가능해지기 전(통상 24주)까지는 임신중절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 수정안을 11월 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판결했다.

NYT는 이를 두고 법원이 “투표를 허용함으로써 임신중절 권리 지지자들이 직접적으로 이 의제를 평가할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전국적인 임신중절 접근권 보장 캠페인을 이어갈 기회를 줬다”라고 평가했다. 김남영 기자

## 63세 남성과 12세 소녀 결혼 ‘충격’… 나라 전체가 공분

### 가나 경찰 “소녀 찾아내 보호중”

가나에서 63세 남성과 12세 소녀가 결혼해 현지에서도 비인간적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2일 가나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한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가나 난구와에서 열린 종교 지도자 고보 루 울로모(63)와 12세 소녀가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다.

온라인에서 퍼진 소식은 트위터를 장악했다. 이에 가나의 일부 유명인들도 나서 해당 결혼은 비인간적인 행위라며 분노를 표했다. 또 대중들이 “12살 아이가

어떻게 아내가 될 수 있냐”는 여론이 커져 지난 2일 경찰은 성명문을 발표했다.

경찰은 “해당 소녀의 신원을 확인하고 찾아냈다”며 “현재 소녀와 어머니는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여성, 아동, 사회복지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나에서 결혼할 수 있는 법적 최소 나이는 18세다. 그러나 전통과 관습이라는 이름 하에 가나를 포함한 아프리카 내에서는 조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남민주 기자



가나에서 63세 남성과 12세 소녀가 결혼하며 대중들의 공분이 이어졌다. 가나 경찰 측은 성명문을 발표한 상태다. ©X

## 이스라엘군 가자지구 공습으로 구호단체 직원 7명 사망… 미국·영국·호주 등 조사 촉구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지붕에 구멍이 뚫린 월드센트럴기친 소속 차량의 모습. ©현지 영상 캡처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습으로 국제 구호단체 월드센트럴기친(WCK) 직원 7명이 사망하면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폴란드 정부가 이스라엘 측에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존 케리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던 WCK 직원들이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한 데

분노했다”며 “보다 광범위한 조사가 투명하게 이뤄지고 결과에 따른 적절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도 WCK 사망자 중 영국인 3명이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주제 이스라엘 대사를 소환하고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호주, 캐나다, 폴란드 정부 역시 자국민 사망과 관련해 이스라엘 측의 설명을 요청했다. 이나래 기자

앞서 WCK는 생명을 내고 가자지구 차량 폭격으로 직원 7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사망자 가운데 영국, 호주, 폴란드 국적자와 미국-캐나다 이중국적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의도치 않은 비극적 사고”라면서도 책임을 인정했으며, 이스라엘 방위군도 상황 조사에 착수했다.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쓰세요!

홍보대사 남보라

홍보대사 정준호

## 사장님 지원 플랫폼

# 노란우산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복리효과로 폐업 시 퇴직금 역할
- 지자체 가입장려금 지원
-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KBIZ 중소기업중앙회**

\*취급은행: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농협·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 중소기업중앙회 준법지원실 심의명 제24-082(2024.3.11~2025.2.28)  
 위 공고는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철저한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예금저보도 연내) 노란우산은 예금저보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지 않으나, 중소기업중앙회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로서 중소기업중앙회법 제120조에 따라 정액 지급에 필요한 책임보험을 위해 매 결산마다 내부통제를 포함한 준법공급을 의무적으로 실시합니다. 노란우산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 또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애굽 왕자 세넨무트(Senenmut)는 모세이다 II

성경이 전하는 모세의 일생과 전기(傳記)를 들여다보면 그의 생애에 두 번의 커다란 전환점을 발견할 수 있다. 두 번의 커다란 전환점은 그 주기가 정확하게 40년이다. 두 번의 터닝포인트를 지날 때마다 모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모세의 삶은 그리스도 삶의 모형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와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였다. 모세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룬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투탕카멘의 죽음』(Mary Nell Wyatt, 리진만 역)에서 발췌한 아랫글에서 독자들은 40년 주기로 전혀 다른 모습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그리스도 삶의 전조(前兆)가 된 모세의 삶에 대해 놀라운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출애굽 진실에 관한 저자의 30여 년간의 끈질긴 탐구 결과물로, 지난해 12월, 발간 1개월 만에 2쇄를 발간할 만큼 한국 크리스천들에게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익히 영어 원서 『Battle for the Firstborn』은 '미국 아마존 화제의 도서'로 영어권 크리스천 독자들에게도 호평을 받아왔다. <편집자 주>

## 세넨무트를 위해 시작된 TT71 묘지

또한 같은 재위 7년에 세넨무트를 위한 묘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미 묘지의 비문은 세넨무트가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임을 보여준다. 그 위치는 그가 왕실과 매우 가까웠음을 나타낸다. 묘지의 첫 번째 비문은 다음과 같다.

[...] 신성한 땅에 있는 사람... 세넨무트 [...] 아문 세넨무트의 청지기를 위해, 정당한, 고관 라모스... 그의 [...] 어둠의 그는 태양의 원반을 볼 수 있습니다. 라(Ra) 신을 숭배하여 눈(Nun)에서 부활한 자를 달라고, 그가 원하는 대로 모습을 드러내고, 그의 카(ka)가 만족할 수 있도록 그의 무덤에서 그의 의지를 행사할 수 있도록 [...] 아문 세넨무트의 곡물 창고 감독자, 『The Tombs of Senenmut』, Peter Dorman, p. 31

텍스트 6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습 왕자 백작... 청지기... 세습 왕자 백작... 청지기... 세넨무트...' '유전'이라는 단어는 세넨무트가 왕실과 관련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첫 번째 표시이다.

다음 본문인 7번은 왕궁이 언급된 것처럼 그가 이미 권력을 휘두르기로 결심했음을 분명히 한다. 세습 왕자, 궁전에서 권위를 가진 백작, 세넨무트는 아문의 곡물 창고 감독자로 정당화되었다. '그의 어머니 하트노퍼 집의 여주인. 봉헌물 만들기, 두 배로 순수한 민호템, (11-13열은 훼손되었다) 청지기 세넨무트가 정당화됨, 그의 사랑하는 아버지 라모세가 의롭다 하심을 받다'

그의 부모인 하트노퍼(Hatnofer)와 라모스에 대한 언급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트모세 1세와 그의 딸 핫셉수트

는 자신 부모의 아들로 알려지길 바라는 모세의 열망을 존중했다.

또한 다른 텍스트에는 아메넵하트(Amenemhat)라고 불리는 그의 형제와 '그의 사랑하는 여동생 아호테(Ahhotep)'가 언급되어 있다. 우리는 성경기록을 통해 모세에게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있었다는 것을 안다. 이것은 그의 묘지에 있는 실제 가족의 묘사를 허용함으로써 사랑스러운 입양 어머니와 입양 할아버지의 그림을 그린다.

나는 이것이 모세의 이야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주장한다.

히브리서 11:24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주어진 이름인 '세넨무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세넨무트의 이집트 이름은 '어머니의 형제를 의미한다. 성경에 따르면 모세는 파라오의 딸인 핫셉수트의 아들로 알려지기를 거부하고 자기 부모와 국적을 유지하기를 고집했다.

나는 그가 핫셉수트를 매우 사랑했고 그의 생명을 구해준 그녀에게 깊이 감사했다고 믿는다. 나는 또한 모세에 대한 그녀의 사랑이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믿는다. 그에게 주어진 이름으로 볼 때, 나는 그와 파라오의 딸과의 관계가 그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방식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믿는다.

## 하트노퍼(Hatnofer)와 라모스(Ramose)의 묘지

세넨무트의 부모(요게벳과 아모람) 1936년 1월 엠브로스 랜싱과 윌리엄 헤이스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위해 고

대테베에서 나일강 건너 발굴하던 중, 그녀의 양아들에 대한 핫셉수트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는 흔적이 발견됐다.

이것은 세넨무트의 묘지 조성이 시작된 같은 해였다. 이 발견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나는 그것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매우 흥분했다. 나는 진정으로 이들이 모세의 부모로 성경에 이름이 언급된 사람들이라고 믿었다.

묘지와 그 발견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마침내 사진이 있는 원본 보고서를 찾았다. 보고서를 읽고 사진을 분석하면서 경이감을 느꼈다. 그 증거는 모세의 가족에 많은 빛을 비추주었다.

하트노퍼는 세넨무트의 어머니였다. 즉, 그녀는 투트모세 1세 7년 그 당시에 18세인 모세의 어머니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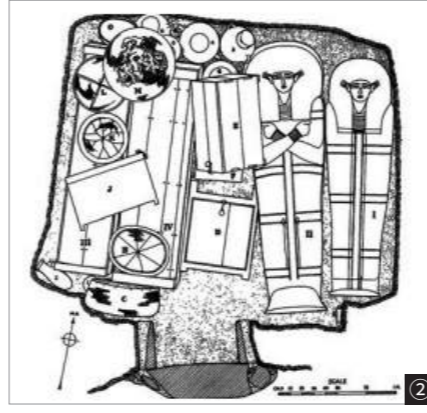
그녀의 미라는 훌륭한 방식으로 보존되었으며 그녀가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 치료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녀의 관은 아름답게 칠해진 석관이었다. 미라 안에는 아름다운 금박 미라 마스크가 있었다. 묘지는 일반적으로 왕실 또는 거의 왕실 매장지에 포함되는 모든 품목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묘지벽에는 일반적으로 왕실 매장지와 관련된 벽화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것은 그 안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공간이었다.

아름답게 칠해진 또 다른 관 안에는 모세의 아버지인 라모세의 미라가 있었다. 그러나 그의 미라는 하트노퍼의 미라와 같은 상태가 아니었다. 사실 그것은 주로 뼈였다.

"대조적으로 동일하고 정교한 외부 아마포가 제공되지만, 라모스의 미라는 뼈에서 피부와 살이 크게 손실되어 대부분 골격화 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두꺼운 갈색 머리카락이었다. 수많은 아마포 층 사이에 실제로 일부 뼈가 잘못 수습되었기 때문에 입관 당시 몸이 완전히 온전한 것도 아니다. 하트노퍼와 달리 아버지의 미라는 장신구, 장례식 가면, 파괴된 두루마리, 글자가 새겨진 수의로 장식되지 않았다." 『Family burial and Commemoration in the Theban Necropolis』, by Peter Dorman, p. 6

라모스의 유골 상태로 볼 때 그가 원래의 묘지에서 발굴되어 하트노퍼의 매장 당시 이 묘지로 옮겨졌음이 분명하다. 다른 두 개의 관에는 세 명의 젊은 여성과 세 명의 어린이가 유해가 들어 있었다. "더 피상적으로 방에 있는 여섯 명의 익명 미라를 감싸고 있었는데, 그것은 세



① 테베에서 나일강 건너 셰이크 압델 엘-쿠르나(Sheikh Abd el-Qurna)에 있는 세넨무트를 위해 건설된 최초의 묘지 ©Elin Tountiaire Haugvik Berglund ② 처음 발견되었을 때의 묘지 그림 ©Lansing & Hayes 1937, 퍼블릭 도메인 ③ 하트노퍼에 있던 미라 마스크. 이 묘지의 모든 출토품은 뉴욕시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다. 그들이 발견되었을 때 발굴은 MET의 후원을 받았다. ©Mary Nell Lee ④ 황금 마스크를 쓴 하트노퍼의 미라 ©Laming & Hayes m7, Public Domain

명의 젊은 여성과 세 명의 어린이가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들 유해는 뼈 더미에 불과했고, 살점이나 결합 조직이 거의 없었다. 분명히 함께 모여 압축된 상태로 아마포로 묶였다.

분리된 미라 중에서 발굴자들은 쥘 덩어리, 갈대 돗자리, 흙, 모래 및 자갈 덩어리를 발견했으며, 적어도 한 구의 미라는 아자나무 갈대로 보강되어 있었다. 이렇게 뒤죽박죽 합쳐진 뼈는 분명히 정상적인 방부처리를 하지 않고 오히려 탈구된 뼈 사이에 포함된 원래 갈대 매트와 함께 다른 위치에서 발굴되었음을 나타낸다." (by Peter Dorman, p.6)

라모스는 그의 아내 하트노퍼보다 먼저 사망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것은 모세가 파라오의 존경을 받기 이전이었을 것이다. 그의 몸은 분명히 방부 처리되거나 미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즉,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단순히 땅에 묻혔다. 흰색 관에 있는 시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모두 땅에 매장된 후 발굴되어 하트노퍼의 죽음과 함께 이곳으로 옮겨졌다.

하트노퍼가 미라로 만들어져 잘 보존되었다는 사실은 그녀가 죽었을 때 테베의 모세 근처에 살았을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그녀의 남편은 그 시간 이전에 죽었고, 그의 집 근처 삼각주 지역에 묻혔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다른 미라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북쪽 집에 묻혔을 가능성이 높다.

매장은 세넨무트의 가족이 왕실 칭호가 없었음에도 매장 당시 왕실로부터 높은 존경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하트노퍼(Jochebed)는 '집의 여주인'이라는 칭호를 받았고, 라모스(Amram)는 '합당한 자로 불렸다.'

묘지 내부의 기사에서 발견된 이름에는 네페루레, 핫셉수트 및 마트카레가 포함되었으며, 같은 해에 핫셉수트는 왕실 이름을 획득했다. 이것은 이 무덤에 그녀의 이름이 마트카레로 변경되기 전후 왕실에서 칭호가 내려졌음을 나타낸다. 발굴자들이 약 10년 전에 발견한 또 다른 묘지의 널빤지를 기억했을 때, 이것을 세넨무트의 가족으로 식별했다. 이 묘지인 세넨무트의 데이르 엘 바흐리(Deir el-Bahri) 묘지(TT353)에는 세넨무트, 하트노퍼 및 라모스의 부모와 아들을 묘사

한 널빤지가 있었다.

이 묘지는 세넨무트를 위해 지어진 첫 번째 묘지인 테베 묘지 71(TT71)로 알려진, 세넨무트를 위해 지어진 묘지 바로 아래에 있다. 셰이크 압드 엘 쿠르나(Sheikh Abdel Qurna)의 고대 테베(Thebes) 맞은편 나일강 서쪽에 자리 잡고 있다. 하트노퍼와 라모스의 묘지는 세넨무트의 묘지에서 나온 무늬목으로 덮여 있었는데, 이는 그들의 묘지가 먼저 지어졌음을 보여준다.

이 매장지에서 수집한 풍부한 정보가 있다. 근처에는 세넨무트의 애완동물이었던 지도 모르는 말과 작은 유인원의 부장품도 있다. 노래 부르는 사람이었던 하모스(Harmose)의 관도 세넨무트의 묘지 아래 잔해에서 발견되었다. <계속>

※이 글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투탕카멘의 죽음』에서 발췌해 소개합니다.

글: 메리 넬 와이엇(Mary Nell Wyatt) 번역: 리진만 선교사



**한국수력원자력주**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APRI400**

미래의 에너지 솔루션  
**소형모듈원자로 (SMR)**

탄소배출 제로  
**대용량 수소 생산**

해외에서 입증된 기술력  
**원전수출 사업확대**

# Energy Up, Tomorrow

탄소 배출 없는 청정 에너지로  
탄소중립 시대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갑니다

# “스코틀랜드 의회, 새로운 조력자살 법안 상정... 기독교인들 경고”

스코틀랜드 기독교인들이 조력자살 합법화 제안을 경고하면서 취약계층이 압박감을 느끼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이같은 경고는 자유민주당 하원의원 리암 맥아더가 최근 제출한 불치병을 앓는 성인들을 위한 지원사망 법안의 도입에 따라 나왔다.

이 법안은 “회복할 수 없고 조기 사망을 초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진행성 질환, 질병 또는 상태를 앓고 있으며 동의한 성인에게 조력자살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는 2015년 유사한 법안이 부결된 이후 스코틀랜드에서 조력자살을 합법화하려는 세 번째 시도이다.

기독교연구소(Christian Institute)의 사이먼 켈버트(Simon Calvert) 부소장은 “노인, 질병, 장애인은 가족과 영국 의료보험(NHS)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종 보호 장치를 제거하면 취약계층은 자신의 생명을 단축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게 만들 것”이라며 “그것은 수천 명의 죽음을 앞당길 것이다. 유럽과 북미 전역 관

할권에서는 자격 기준이 확대되어 엄청나게 빠르게 사망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을 보았다. 스코틀랜드는 다를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대신 임종 돌봄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퇴행성 질환이나 부정확한 예후를 가진 많은 사람들은 조력자살을 이용할 수 없어 얼마나 나쁜지 이야기했다”라며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사회 전체에서 그들의 삶이 살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 수준의 치료나 완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아픈 사람들의 자살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열심히 하는 대신 의료 개선을 위한 캠페인에 시간과 돈을 투자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스코틀랜드 가톨릭주교회의를 대표하는 페이즐리 교구의 존 키넌 주교는 “맥아더가 제안한 법안은 시민이 자신의 가치를 잃을 수 있어 사회가 그들의 삶을 살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생각을 우리 문화에 도입하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력자살이나 안락사가 합법화된 국가의

증거에 따르면 조력자살을 선택한 노인과 취약계층의 최대 절반이 부담이 될까 봐 자신의 삶을 마감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기 때문에 조력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에게 조력자살의 가능성은 죽을 권리를 갖는 것보다는 죽을 의무에 대한 온전한 무게와 기대를 느끼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조력자살에 관한 어떤 법률도 우리 동료 시민에게 이러한 불공평한 부담을 가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특히 그들은 자신이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더욱 그렇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인과 빈곤층을 포함한 취약한 계층이 잠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때, 적절한 대응은 그들이 죽을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돌봄과 연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라고 했다.

조력자살에 반대하는 의료전문가 연합인 ‘Our Duty of Care(ODOC)의 질러언 라이트 박사는 “모든 사람을 위한 충분한 자금이 지원되고 접근 가능한 고품질의 완화 치료가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와 관련 없음) ©Pixabay

그는 “조력자살의 위험은 개인의 삶이 아프거나 장애가 있거나 혼란스럽거나 사회에 대한 기여가 미미하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사회에서 개인의 삶을 평가절하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위험은 불치병 환자와 장애인이 사회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자신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잔혹하게도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고안된 조력자살에 대한 법안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가장 취약한 계층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CARE(Christian Action Research and Education)의 스코틀랜드 정책 책임자인 마이클 베이치는 “조력자살 합법화가 스코틀랜드 의회에

서 마지막으로 논의된 이후 조력자살 합법화의 위험에 대한 ‘중요한’ 증거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캐나다 등 관할권에서 발생한 사건을 감안할 때 이는 크게 성장했다. 이 관행이 스코틀랜드 환자에게 선택 사항이 된다면, 죽을 권리는 부담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죽을 의무’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스코틀랜드 복음주의 연합(Evangelical Alliance Scotland)의 공공정책 책임자인 크리스 링랜드(Chris Ringland)는 “임종을 앞둔 가족과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에 대해 이 법안이 보내는 메시지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은 자율성과 자유를 제공하기보다는 NHS와 완화의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불치병 환자들에게 계속 살아가는 것이 ‘부담’이 된다는 불안을 조성할 것”이라며 “우리 회원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평등하게 창조되었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불치병 환자들은 자신의 삶을 계속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 이명경 기자

## 포르투갈 새 정부 출범... 중도우파 연합의 몬테네그로 총리 취임식 마쳐

3월 10일 총선 승리한 사민당등 보수 민주동맹이 1당 집권 과반득표한 정당없어 극우 세가당이 캐스팅보트 행사할 듯

포르투갈의 사회민주당(PSD) 대표인 루이스 몬테네그로가 2일 (현지시간) 새 정부를 출범시키며 총리 취임식을 거행했다.

이번 포르투갈 내각 제 24기의 취임식은 3월 10일 치러진 총선에서 사민당을 포함한 소수 정당 2개가 연합한 민주 동맹(AD)이 1당을 차지하면서 몬테네그로 총리와 17명의 장관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수도 리스본의 아주다 궁전에서 치러졌다.

포르투갈 조기 총선에서 중도 우파 사회민주당(PSD·사민당)과 소수 보수정당 2개로 구성된 민주동맹(AD)은 29.5%를 득표해 1당을 확정지었다. 하지만 과반은 차지하지 못해 보수 연합을 결성했다. 포르투갈 전체 의석은 230석이다.

몬테네그로 총리는 취임식에서 향후 보건 의료 개혁과 부패와의 전쟁 등 중점적인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야심찬 계획들”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내부의 단합을 우선으로 국가와 국민, 기업들 간의 소통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그는 강조했다.

마르셀루 헤벨루 데 소자 대통령은 새 정부에 대한 지지와 국가적 단합을 강조하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새 내각은 3일 첫 내각 회의를 열고 집무에 들어간다.

하지만 17명의 장관들 가운데 정부 고위직을 맡아본 경험자는 단 한명 뿐이며 몬테네그로 총리도 전에 정부 중책을 맡아본 적이 없는 인물이다. 몬테네그로는 종전과 달리 정치권 내부 인사가 아닌 외부 전문가들로 내각을 꾸려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내각의 주요 인물들 가운데에는 브뤼셀의 유럽 연합 본부에서 주로 경력을 쌓고 유럽연합의 정치판도에 익숙한 인물들이 더 많다. 파울루 랑겔 외무장관과 누누 멜루 국방장관은 모두 2009년부터 유럽의회 의원으로 활동했다.

인구 1030만명의 포르투갈은 연료 소비 증가와 경제 개혁 등에 대비해서 2026년까지 유럽연합 지원금 220억 유로를 받고 있는 나라이다.

호아킴 미란다 사르멘투 재무장관은 리스본 대학교 교수로 과거 정부의 과다 지출을 개선해 앞으로 새로운 긴축 정책을 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 공약으로 세금 인하와 임금인상, 연금 인상, 효율적인 작은 정부와 공공 서비스 개선을 내걸었던 몬테네그로 총리는 취임사에서 앞으로 3년간 법인세도 현행 21%에서 15%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차미레 기자

## 이란외무- 구테흐스 회담, 이군의 시리아 이란대사관 폭격 비난

유엔 “외교시설과 외교관에 대한 어떤 공격도 용납 못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과 이란의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히안 외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전화 회담을 하면서 시리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내 영사관 건물을 폭격한 이스라엘의 행위에 대해 논의했다고 이란 외무부가 공식 발표했다.

두 사람은 1일 이스라엘 전폭격들이 이란 대사관의 영사관 건물을 폭격해 사상자를 낸 것에 대해 비난하면서 최근 가지지구의 상황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논의했다고 이란 매체들을 인용한 신화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스라엘 공격으로 숨진 이란 대사관의 7명, 특히 2명의 군사령관 출신이

란 외교관들의 죽음에 대해 애도를 표하면서 유엔이 이 날 앞서 세계의 어떤 외교 시설과 영사관들, 외교관과 직원들에 대한 공격도해서는 안된다는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고 전화 통화에서 밝혔다.

그는 그 밖에도 유엔이 가지지구의 즉각적인 정전을 요구했으며, 가자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호품의 전달과 현재의 전투상황을 더 확대하지 말 것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압둘라히안 외무장관은 유엔사무총장에게 이스라엘의 공격을 비난하고 이란에 동정을 표해준 데 대해 감사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이란 대사관 공격은 “모든 외교관들과 외교 시설에 대한 면책 특권 등 국제 관행과 국제법을 어긴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엔도 이스라엘의 행동을 더욱 강력하게 비난해 줄 것과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긴급 안보리 회의를 소집해서 어떤 공격에 대한 구체적 대응을 해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시리아 국방부는 1일 오후 5시(현지시간)에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골란고원 방향에서 미사일 공격을 가해왔으며 다마스쿠스시내 이란 대사관의 영사관 빌딩을 정조준한 공격이었다고 발표했다.

스테판 두저릭 유엔사무총장 대변인은 2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비난과 함께 현재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양측이 모두 전투와 공격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차미레 기자

란 외교관들의 죽음에 대해 애도를 표하면서 유엔이 이 날 앞서 세계의 어떤 외교 시설과 영사관들, 외교관과 직원들에 대한 공격도해서는 안된다는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고 전화 통화에서 밝혔다.

그는 그 밖에도 유엔이 가지지구의 즉각적인 정전을 요구했으며, 가자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호품의 전달과 현재의 전투상황을 더 확대하지 말 것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압둘라히안 외무장관은 유엔사무총장에게 이스라엘의 공격을 비난하고 이란에 동정을 표해준 데 대해 감사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이란 대사관 공격은 “모든 외교관들과 외교 시설에 대한 면책 특권 등 국제 관행과 국제법을 어긴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엔도 이스라엘의 행동을 더욱 강력하게 비난해 줄 것과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긴급 안보리 회의를 소집해서 어떤 공격에 대한 구체적 대응을 해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시리아 국방부는 1일 오후 5시(현지시간)에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골란고원 방향에서 미사일 공격을 가해왔으며 다마스쿠스시내 이란 대사관의 영사관 빌딩을 정조준한 공격이었다고 발표했다.

스테판 두저릭 유엔사무총장 대변인은 2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비난과 함께 현재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양측이 모두 전투와 공격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차미레 기자

## 대만 최전방 진먼다오서 실탄훈련 개시... 20여일간 실시

대만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만군이 2일 중국 푸젠성과 인접한 최전방섬인 진먼다오 본섬과 부속섬에서 실탄훈련을 시작했다.

대만 중앙통신은 진먼방어사령부를 인용해 훈련이 이날부터 약 20일 간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첫날 훈련은 바다에 짙은 안개가 나타나 해상 훈련이 지상 훈련으로 대체됐다.

훈련 장소가 변경된 데 대해 기상 상황이 아닌 양안간 긴장 정세를 고려한 것이 아닌지라는 의문도 제기됐다.

진먼다오 본섬에서는 4월 8-13일, 16-18일, 22일, 24일 훈련이 실시된다. 부속섬인 레위에서는 4월 2일, 9-11일, 16-18일, 23-25일, 명후위에서는 3일 실탄훈련이 실시된다. 이번 훈련은 지난 2월 14일 진먼다오 부근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 어선이 대만 측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뒤집어져 중국 어민 2명이 익사한 사건으로 양안 관계가 불편해진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대만 측은 이번 훈련이 특정 상대를 겨냥한 것이 아닌 연례훈련이라고 밝혔지만, 중국은 “만약 도발을 감행하고, 경계감동한다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문예성 기자



인천환경공단  
ENVIRONMENTAL CORPORATION OF INCHON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 환경도 도시도 활





**안전 지키GO!**  
전국 첫 도시침수 예방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자원 다시쓰GO!**  
공기업 선도 공단  
폐기를 자원순환 100% 달성



**기후변화 맞서GO!**  
2030 온실가스 83% 감축,  
기후변화 선제 대응



**서비스 올리GO!**  
환경교육 인프라 및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조성



퇴직연금을 건강하게  
하나연금닥터



# 손님이 먼저 알아보고 선택해주신 하나은행 연금 더드림 라운지

여의도 | 을지로 | 삼성동 | 부산 | 대구 | 광주

2023  
퇴직연금 자산증가  
전금융권 1위

2023년, 금감원  
통합연금포탈 공시 기준

## 나만을 위한 특별한 연금플랜을 만나보세요



### 연금 더드림 라운지

대상 손님 | 1억원 이상 IRP/DC 자산 보유한 개인손님

예약 방법 | 하나원큐앱 - 메뉴 - 퇴직연금 - 연금닥터 진단 - VIP상담

### 연금 더드림 라운지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 연금 VIP 종합 컨설팅
- 연금자산관리
- 연금 및 은퇴 설계
- 전문가 상담 연계 서비스



※ 하나연금닥터는 하나금융그룹 퇴직연금 전문 브랜드입니다. ※ 이 금융상품은 사업자가 적립금 운용 상품을 제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만, 상품결정권은 가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DC/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한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실제배당금 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연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DC/IRP]계좌의 집합투자증권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당사는 해당 퇴직연금에 관하여 중립적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등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전 결정세액이 세액공제액보다 작은 경우 최대 원금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기타비용의 발생여부 등에 따라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홈페이지(<https://www.hanabank.com>), 모바일앱(아니1Q)을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퇴직연금 전용고객센터 1599-2080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본 홍보물은 2025년 01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 중립감사인 심의필 제2024-광고-0106호(2024.02.06-2025.01.31) / CC브랜즈240207-0064

# 한 “인구부 산하에 청년청 신설, 청년 정책 포괄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강원 원주시 롯데시네마 남원주 관 앞에서 열린 박정하 원주갑, 김완섭 원주을 후보의 선거 지원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인구부 산하에 청년청을 두어 청년 정책을 포괄하겠다”며 “청년의 정치 참여와 권익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원주 유세에서 “조국 대표가 4050세대가 청년여성 정책에 밀려 소외됐다고 주장했는데 어차구니 없는 소리”라며 “우리도 4050세대이며, 이들을 위한 정책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여러 공제, 5세 무상교육, 금융

투자소득세 폐지 약속 등이 4050을 위한 정책”이라며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국 대표 스스로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약속한 환원 시리즈를 지켜라”며 “응동학원 관련 장학금 반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불공정과 공정, 투기와 정상 정책의 대결”이라며 “조국 대표 스스로 불공정의 아이러니”라고 꼬집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1호 공약으로 저출

산 정책을 총괄하는 인구부 신설을 공약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인구부 산하에 청년청까지 두어 청년, 여성 정책을 모두 관장하겠다던 구상으로 풀이된다. 한편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일부 투기 의혹 후보들을 지목하며 “이재명 대표가 내치지 못하는 이유가 줄줄이다 그만둬야 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 대표의 나경원 후보 비하 발언과 관련하여 “여성혐오를 내세워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용국 기자

# 이재명 “국민의힘은 제주4·3 학살 후에, 역사 왜곡 공천 인사에 불이익 줘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제주 4·3 학살의 후예라 할 수 있는 정치집단이 국민의힘”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대표는 이날 제76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4·3 사건을 폄하하고 있다”며 “역사를 왜곡하는 인사들에게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도 그런 인사에게 공천장을 주고 있는데, 이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추념식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도 “지금이러다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제주 후보들의 4·3 왜곡 처벌 공약에 대해서는 “역사 평가는 자유로워야 하지만 악의적 왜곡과 조작, 피해자 고통 유발 행위에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추념식에서 유족의 회고 발언에 안경을 벗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는 “국가폭력은 허용될 수 없다”며 “국민을 살해·억압한 데 대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위로했다. 한편 이 대표는 추념식이 끝난 뒤에는 경남 창원과 부산을 연이어 방문해 집중 유세를 펼쳤다. 박용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6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추모 영상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시스

# 서울 한강벨트, 총선 격전지… ‘치열한 접전’ 양상

4.10 재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한강벨트 지역구들이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발표된 주요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영등포갑, 동작을, 중성동갑 등 한강벨트 13개 지역구 대부분이 후보자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에 있어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등포갑에서는 민주당 채현일 후보와

국민의힘 김영주 후보 지지율 차이가 4% 포인트 이내로 나왔다. 동작을에서도 류삼영(민주당)-나경원(국민의힘) 후보 간 격차가 최대 8%포인트까지 좁혀졌다. 중성동갑의 경우 일부 조사에서는 전 현역 민주당 후보가 7%포인트 차로 앞섰지만, 다른 조사에선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에 16%포인트 뒤졌다. 4선 현역의 권영세(국민의힘) 의원과 강

태웅 민주당 후보가 맞붙은 용산 지역구 역시 초반 접전이 예상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강벨트 부동층 유권자가 많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막판 변수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포을 등 일부 지역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우위를 점하는 모습도 관측됐다. 박용국 기자

# 이복현 “양문석 사업자 대출, 주택 구입 목적이면 명백한 불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일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주택 구입을 위해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주택 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은 회색지대가 아닌 합법과 불법 중 하나를 판단하는 문제”라며 “2019-2020년 부동산 과열기에 다양한 방식으로 투기적 이익을 노린 세력에 엄중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대출로 집을 사면 자연연자 대출이 줄어들고 특정 업권으로 자금이

쏟아지게 된다”며 “2022년에도 불법 대출 600~700건을 적발해 금융사 직원 징차 면직 등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문석 사안의 중대성과 정책 관련 검사 필요성이 있다”며 “검사 결과가 신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흥풍 ELS 사태에 대해서는 “시스템 실패인 만큼 장구 직원에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 건 의구심이 있다”며 “일반 제재 원칙을 따르되 과거 사례를 반영해 최대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용국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 감독 업무 혁신’ 등을 위한 금융감독원-네이버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재판 불참에 재판부 “구인영장 발부” 경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사진)가 보석 기간 후 연이어 법정에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에서도 송 대표는 불출석했다. 변호인단 역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재판부는 “상

상하지 못한 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불출석에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기소 자체를 인정하지 못해도 법정 출석 거부하는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단 불출석이 계속되면 구인영장 발부 등 강제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이 사건은 재판 진행을 멈출 수 없다”고 경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진단서 미제출에 대해

서도 “건강 상태에 따라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게 사법제도를 존중하는 태도”라고 강조했다. 앞서 송 대표 측은 보석 기간에 “참정권 침해”라며 재판 거부와 단식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다음 공판기일은 15일로 지정됐다. 송 대표는 외곽조직을 통해 약 7억 6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용국 기자

# 대통령실 “윤 대통령-전공의 만남, 시간·장소·의제 모두 열어놓고 경청할 것”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들의 만남 관련, 시간과 장소, 의제 등 모든 사안에 대해 열린 자세로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전공의들과 만남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며 “대통령께서 전공의들의 이야

기를 모두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가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에 윤 대통령과 조건 없이 만날 것을 제안한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박 회장으로부터 연락은 오지 않았지만, 조만간 만남이 성사될 것이

라는 전망이 나온다. 만남이 이뤄지면 전공의 집단행동과 의정갈등의 발단이 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국민들에게 늘 열려 있다”며 전공의 측 입장을 충분히 들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박용국 기자

# 北 “신형 중장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미사일 ‘화성포-16나’ 시험발사 성공”

북한이 2일 신형 중장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화성포-16나’의 첫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3일 밝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극초음속 탄두를 탑재한 ‘화

성포-16나’형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시험발사는 새 미사일의 설계기술과 무기체계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극초음속 탄두 활공비행 궤적과 기동능력 점검하기

위해 사거리가 1000km 내외로 제한됐다. 발사 후 분리된 극초음속 탄두는 1차 101.1km, 2차 72.3km의 고도를 찍으며 동해상에 정확히 탄착했다고 북한은 주장했다. 박용국 기자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 다양한 체험이 가득한 경북 농촌으로 오이소!

경북농촌체험관광 통합포털 **오이소**는 농촌체험·관광·여행·음식·숙박 관련 다양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동감 있는 여행 및 관광지 정보 제공**  
여행객의 목적지, 여행 기간, 소요예산, 여행 목적, 여행 방법, 최적의 Package Tour 스케줄 안내 등 여행정보를 제공합니다.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가득한 소통창구**  
SNS 공유, 리뷰 등록, 오이소 기자단 운영 등 다양한 콘텐츠의 공유가 가능한 소통의 창구를 제공합니다.

**경북농촌체험관광 홍보 콘텐츠 제공**  
경북농촌체험관광 통합포털에서는 영상, 사진, 글, 그림 등 다양한 정보 및 홍보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체험·관광상품 판매**  
최신 트렌드, 감성, 테마, 스토리가 반영된 체험·관광·음식·숙박 축제 등의 체험상품을 판매합니다.

www.gboiso.kr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내 건설사, 사우디서 잇단 대형 가스플랜트 수주 ‘잭팟’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거대 가스플랜트 공사를 연이어 수주하며 호재를 맞았다.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사명을 바꾼 삼성E&A는 약 60억달러(약 8조원) 규모의 ‘파딜리 가스증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회사 역대 최대 규모다.

이 프로젝트는 사우디 동부 주베일 인근 기존 파딜리 가스플랜트를 증설하는 것으로, 완공 후 일일 가스 처리량이 25억에서 38억 입방피트로 늘어난다.

삼성E&A는 이전 프로젝트에서 보인 혁신기술과 노력이 수주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GS건설도 같은 프로젝트의 패키지 2(황회수처리시설) 공사를 1조 6,000억원에 따내며 사우디 플랜트 시장 재진출에 성공했다.

GS건설은 이번 수주를 계기로 해외 플랜트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다양한 건설역량과 해외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



서명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E&A 남궁 흥 사장(왼쪽 두 번째), 아람코 와일 알 자파리 부사장(오른쪽 세 번째), 아호야 아부살 부사장(오른쪽 두 번째). ©삼성E&A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선 최근 사우디가 가스 생산량 확대를 위해 플랜트 투자를 이어가고 있어 국내 업체들의 연계 수주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수주 호재를 계기로 국내 건설사들이 중동 건설시장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나래 기자

## “R&D예산 역대 최고 수준으로” 혁신도전형 R&D에 1조원 투입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R&D 전반에 걸쳐 혁신적 개혁을 추진한다. 특히 혁신도전형 R&D에 1조원을 투자하는 등 미래 유망분야에 대규모 예산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3일 브리핑을 통해 “AI·첨단바이오·퀀텀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를 비롯해 내년도 R&D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역대 최대 수준의 R&D 예산 투입과 R&D 혁신으로 ‘적사신속 지원, 신뢰 기반 투명한 연구환경, 경쟁협력 및 글로벌 연대, 기초연구 및 미래인재 양성’의 4대 요건을 충족하는 ‘R&D다운 R&D’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개선을 비롯해 마이크로 규제 폐지, 연구바성과 온라인 공개, 평가자 마일리지제 도입 등 다양한 개혁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혁신도전형 R&D에 내년 1조원을 투자하고 2027년까지 5%까지 비중을 높일 계획이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R&D 개혁 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다. 아울러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그램 확대, 국내외 대학 간 공동연구 지원,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설 등 미래 인

재 양성에도 힘을 예성이다. 정부는 현재 R&D 예산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예산안은 몇 달 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나래 기자

## 인턴 등록률 4.3%에 그쳐… 수련병원 ‘인력난’ 비상

예비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실제 인턴 등록 비율이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련병원들이 인력 수급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인턴 등록 대상자 3068명 중 131명만이 등록을 마쳤다. 나머지 2937명(95.7%)은 등록을 거부해 상반기 수련이 불가능해

졌다. 지난달 29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의 인턴 계약 포기자는 2697명에 달했다.

이로 인해 의료 공백도 불가피해졌다. 전공의 비율이 30~40%인 서울대학교병원 등 ‘빅5’ 병원은 당장 인력난에 시달리게 됐다.

인턴 인력 부족은 레지던트와 전문의

수급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4~5년간 전문의 배출이 지연될 것만 우려도 나온다.

한편 예비 전공의 158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선 34%가 ‘차후 전공의 수련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복귀 인턴에 대한 상반기 수련 허용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나래 기자

## 대만 강진… 사망자 4명, 다수 부상

대만 동부 해안에서 3일 오전 발생한 규모 7.2의 강진으로 최소 4명이 사망하고 57명 이상이 부상당했다고 AP통신이 대만소방국을 인용해 보도했다. 화롄 현은 이번 지진의 직격타를 받았으며, 타로코 국립공원에서는 등산객 3명이 산 사태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고 대만 일간지 연합보가 전했다.

화롄에서는 한 5층짜리 건물이 1층의 붕괴와 함께 45도로 기울어졌으며, 타이베이에서는 오래된 건물과 신축 오피스 단에서 타일이 떨어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학교는 학생들을 안전하게 운동장으로 대피시켰으며, 여

진에 대비해 교과서로 몸을 보호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지진으로 타이베이 전역의 기차 운행이 중단됐고, 새로운 지상 노선의 일부가 분리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지어진 국회의사당 등에서도 벽과 천장의 파손이 확인됐다.

동부 해안은 산사태와 낙하물로 인해 교통이 마비되었으며, 파손된 차량이 있었지만 부상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지진은 최근 시간대에 발생했지만, 정기적인 훈련과 매체, 현대전화 알람을 통한 준비로 인해 초기 공포는 빠르게 진

정되었다. 일본 기상청은 지진 발생 약 15분 후 오키나와섬에서 30cm 높이의 쓰나미 파도가 감지되었다고 보고했다. 일본은 오키나와 지역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군용기를 파견했으며,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일본 내에서의 피해나 부상자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대만 중앙기상청은 이번 지진의 규모를 7.2로, 미국 지질조사국은 7.4로 발표했다. 대만은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해 있으며,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구호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나래 기자

## 조선업 ‘1분기 세계 1위’ 탈환… 수출 호조 견인

지난 1분기 국내 조선업이 세계 1위 자리를 9개월 만에 되찾으며 수출 호조를 이끌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선박 수주액은 136억 달러(약 18조 3,436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수주액 299억 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전년 동기 대비 41.4% 증가한 수치로, 세계 조선소 수주 점유율 44.7%를 차지했다. 우리나라가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한 것은 2021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

수주량 기준으로는 449만CGT로 중국(490만CGT)에 밀렸지만, 증가율은

한국이 32.9% 증가한 데 비해 중국은 0.1% 감소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선과 암모니아선 수주에서 100%의 실적을 올렸다.

구기보 숭실대 교수는 “그동안 LNG선 중심에서 군수 분야까지 수주 영역을 넓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조선 수출 역시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 수출도 116억 7,000만 달러 규모로 2022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이미지 ©삼성중공업

지만, 아직 회복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다.

향후 조선과 반도체 수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망세가 필요해 보인다. 이나래 기자

## 1분기 주요 그룹 총수 주식평가액 3조원 ↑… 이재용 16조원 ‘1위’

올해 1분기 국내 주요 40개 그룹 총수들의 주식평가액이 3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6조원을 웃도는 주식재산으로 1위 자리를 지켰다.

3일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40개 그룹 총수 주식평가액은 62조 2,552억원으로 최근 3개월간 3조 3,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증가액이 가장 컸던 총수는 이재용 회장으로 최근 3개월간 1조 7,191억원 이상 늘었다. 이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1조 1,138억원 증가했다.

증가율 1위는 박정원 두산 회장으로 69.2% 늘어났고, 이재현 CJ 회장은 37.5% 증가율을 보였다.

1분기 주식평가액 상위권에는 이재용 회장(16조 5,864억원), 서정진 회장(11

조 6,144억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5조 6,738억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반면 조원태 한진 회장은 23.9% 감소해 주식가치 하락 폭이 가장 컸다. 18명의 총수가 3개월간 주식가치가 줄었다.

별세한 고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의 최근 주식평가액도 7,161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나래 기자

동아보검

# 경옥고

소중한 당신께 귀한 마음을 담은

## ‘프리미엄 한방 자양강장제’

다음 경우의 자양강장  
병중병후 · 허약체질 · 육체피로 · 권태 · 갱년기 장애

동아보검 경옥고는 동의보검 처방으로 엄선된 약재를 120시간 달여  
소중한 분을 위해 안전한 한방 프리미엄 자양강장제입니다.

일방의약품 | 광고심의필 | 2023-1688-003600 |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 최성은 목사 “십자가와 부활 소망 붙들고 복음 전해야”

최성은 목사(지구촌교회 담임)가 지난 31일 지구촌교회 분당 부활주일 찬양에 배에서 '나는 부활을 믿는가?(그린도전서 15:1-11)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최 목사는 “매년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묵상하면서 어느 목회자가 부활은 세상의 불공정해 보이는 삶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며 절망을 느끼는 오늘 다시 일어나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나가게 하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다. 그 부활의 첫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말이다”라고 정리했는데 이것은 저의 고백이기도 하다며 “한국 사회는 유난 떨면서 집을 사고, 노년을 준비해야 하는 치열한 경쟁 사회이다. 무엇 하나 쉽지 않은 대한민국의 우리는 유난 떠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이런 삶에 많은 사람이 지쳐있고 피로에 젖어있으며 우울감이 팽배해있다. 그리고 저마다 마음 한가운데 ‘잘 살아야 할텐데’라는 특유의 간절함이 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간절함이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에게는 삶에 대한 간절함 신앙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고 간절하게 사는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자녀들을 깨우고 비몽사몽 한 상태에서 학교, 직장으로 가야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끝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만약 우리 인생에 다시 사는 기회, 두 번째 기회가 없다면 우리의 삶에 대한 치열함이 그리고 열심히 선을 추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 있을까? 아무도 우리의 삶의 선과 악을 심판하지 않고 판단해 주지 않고, 격려해주지 않고, 아무도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설명해주지 않는다면 살아가는 의미가 없어진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은 성경에 있다”고 했다.

최 목사는 “성경은 부활을 이야기 한다. 부활은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한다. 우

리에게 있어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 사는 것이며 이를 통해 오늘을 의미 있게 해주고 내일을 살아갈 소망을 제시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함께하시고, 역을 감을 갚아주시고 악을 벌하시며 심판과 구원을 가져오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모든 인간의 딜레마는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 세상에 대해서 정의와 심판을 원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에게는 구원과 은혜를 원하는 것이다. 인간이 이렇게 너무나도 이중적인 잣대를 가진 이유는 바로 우리 스스로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서 심판을 사회에는 정의를 그리고 나에게서 사랑과 은혜를 바라는 것은 이중 잣대이며 이것이 다 우리 안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잣대에 의해서 공평한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잣대로 공평하게 모든 인간을 보시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성경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잣대로 평가한다면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멸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신 방법은 십자가의 은혜이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결과, 죽음을 맞이하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은 구원을 제시하는 것이었으며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의 행렬에 내던진 것이었다”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꼭 그렇게 아들을 십자가의 끔찍한 죽음에 내어 주셔야만 했는가?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현실은 그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하는 자리이다’고 했다.

최 목사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죄인이 용서받을 길을 활짝 열어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이야기한다. 니고데모가 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봤을



최성은 목사가 '나는 부활을 믿는가'란 주제로 설교했다. ©지구촌교회

때 주님께서 그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해주셨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부활하고 살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대 대신해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답변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진 말도 안 되는 답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인간이 죄인기에 그냥 가볍게 용서하시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악과 불공평에 대해서는 정의를 원하고 나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은혜를 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의 기준이 맞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그런 이중적인, 상충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가 맞이해야 할 십자가의 죽음에 던지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다. 십자가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었다”며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 사건 만큼 생명을 이루는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바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다”고 했다.

최 목사는 “사도 바울은 본문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이 부활하실 새벽에 부활하셨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 성경이 이미 예언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으며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한 하나님의 오래된 구원 계획이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은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복음, 복된 소식이 무엇이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십자가의 복음이 핵심이라면 부활이 복음의 완성인 것을 기억해야 하고 믿어야 한다. 부활이 우리의 복음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요소라면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바울이 전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다”며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혹은 입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났었다는 것을 선포하시길 바란다. 인생에서 절망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리셨다’고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란다”고 했다.

최 목사는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기도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40일간의 땅에 더 남으셨다. 그 40일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제자들은 갈릴리호숫가에서 만나셨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변화와 부활의 역사는 천국에서 이뤄지지만, 그 시작은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시작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사람들을 분명히 변화시킨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이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라고 했다. 이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 정의, 거룩한 의가 드러난다고 고백하고 있다. 우리가 십자가를 가까이 볼 때마다 하나님

의 거룩하심과 동시에 나의 허물, 부족함, 연약함이 보이는 것이 정상이다”고 했다.

최 목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라는 것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이 되어야 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은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라는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다. 구원받고 나아가야 한다. 새로운 삶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나 같은 자에게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주신 주님의 놀라운 소식을 받았을 때 인생 가운데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을 붙들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님의 사랑은 명확한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속에서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데 그렇게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자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끝으로 “동시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가는 천국, 같은 장소에서 그 사람들을 같이 만나고 싶은 열망 가운데 있는 것이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가 된다고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은 장소에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라며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순과 죄, 허물, 세상의 불의를 보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자들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신 것이다.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 3040 목회자들을 위한 김은호·강준민 목사의 멘토링

DNA미니스트리, 4월 15~17일 가평 오론빌리지에서 차세대 목회자 12명 선발해 2박3일 집중 멘토링 공동체·설교·목회·독서·영성 등을 주제로 한 강의

DNA미니스트리(대표 김은호 목사, 이하 DNA)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 가평 오론빌리지에서 '3040 차세대 목회자 멘토링'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책 『다니엘 프로젝트』의 저자 김은호 목사(오론교회 원로)가 DNA를 통해 진행하는 ‘한국교회 살리기 운동’, ‘다음세대 살리기 운동’의 첫 사역으

로, 미주 LA 새생명교회의 강준민 목사가 강사로 함께 참여한다.

DNA는 각 교단의 추천을 받아 30~40대 차세대 목회자 12명을 선발했고, 김은호 목사와 강준민 목사는 2박3일간 이들을 위해 집중 목회 멘토링을 하게 된다. 차세대 목회자들은 부부 동반으로 이 자리에 참석할 예정이다.

총 4번의 강의가 마련된다. 김은호 목

사 ‘비전의 공동체를 만들라!’ ‘이렇게 설교하라’라는 주제로, 강준민 목사는 ‘저수지 목회론’ ‘목회자와 독서와 영성’이라는 주제로 각각 강의한다.

DNA는 “한국교회를 위한 비전을 서로 나누고, 3040 차세대 목회자들이 영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고립된 목회를 벗어나 협력하고 상생하게 하는 ‘행복한 목회’가 되게 할 목적으로 기획했다”며 “한국교

회의 미래와 목회 현장을 함께 고민하고 답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오론교회 원로가 된 김은호 목사는 제2기 사역으로 ‘DNA 미니스트리’를 시작했다. DNA의 D는 다니엘(Daniel), N은 다음세대(Next Generation), A는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로, 다니엘과 같은 다음세대와 3040목회자들을 세우기 위한 사역이다. 그가 최근 펴낸 신간 『다니엘 프로젝트-거룩한 습관(Holy Habit)』에는 성경 속 다니엘에게서 찾은 21개 키워드가 각 챕터마다 핵심 주제로 제시되어 있다.

김진영 기자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 대한민국 희망을 캠 (캠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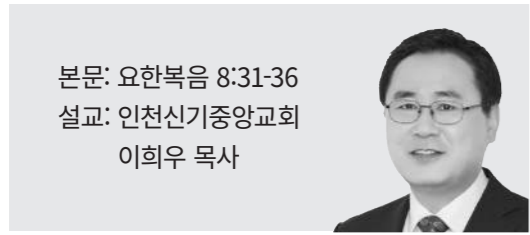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 위태로운 기업의 기회를**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발급금
- 침체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 유류 저형용 국유재산 관리
  - 노후 공공주택 개발
  - OnBid (온비드)
-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을**
  - 기업구조조정펀드
  - 벤처스탁펀드
  - 기업구조조정지원재단(기업)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http://www.kamco.or.kr) 문의 1588-3570

# 요한복음(46)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본문: 요한복음 8:31-36  
설교: 인천신기중앙교회 이희우 목사

미국 영화 **빠빠용**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죽은 같은 감옥에서 끊임없이 탈출을 시도하다가 거듭된 실패로 무인도 같은 도처로 탈출할 수 없는 곳에 갇혔던 **빠빠용**이 최후의 탈출을 시도한다. 코코넛 잎으로 만든 영성한 자루를 던지고 바다로 뛰어든데 사투를 벌이던 주인공이 “나 아직 살아있다”(I'm still here)고 말한 후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는 내러이션(narration)과 함께 영화가 끝난다. 자유는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쟁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가 뭐가? 프랑스인들이 봉건 군주들과 투쟁하는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킨 것도, 미국인들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것도, 그리고 흑인들이 종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운 것도 죄다 자유를 위한 것이었다. 과거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해 왔던 자유, 지금도 그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이 많다. 미국 독립 당시 패트릭 헨리(Patrick Henry)는 “자유가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고 했는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선언하셨다.

### ◆자유, 죄가 가로막는다

자유에 대한 욕구는 에덴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지 않느냐는 뱀의 꾀안에 속은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지내려는 시도였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도 마찬가지,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자유롭게 살려고 집을 나왔다. 이게 인류의 모습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자유를 얻고 행복했느냐인데 행복은커녕 끔찍한 비인간의 상태로 추락하고 말았다. 자유가 아니라 부자유한 죄의 노예가 된 것,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선물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불행에 빠지고 만 것이다.

본문에서도 자유의 욕구가 강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31-32절).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이 진리를 알면 자유를 얻게 된다는 말씀이다. 36절에서도 반복한 후 예수님은 자신과 진리를 동일시 하신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4:6).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 진리 곧 예수님을 알면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어떤가? 인터넷과 방송, 신문에 설교가 넘치지만 오늘날 영양실조 걸린 성도가 많지 않나? 왜 그럴까? 골라 먹는 재미 때문일 수 있다. 혹시 맘에 드는 설교만 찾지 않나? 설교는 인간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선포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구속이라고 말하

는 사람들도 있다. 묻고 싶다. 말은 구속 아닌가? 구속당하지 않으려고 말 안 하며 사나? 또 공기를 호흡하는 것은 구속 아닌가? 그게 싫어서 숨 안 쉬나? 진리가 질리게 한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진리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감사한 것은 이 진리가 어떤 비밀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면 진리를 아는 것,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 출애굽을 연상시키는 단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자유, 이 자유는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 가는 죄악으로부터의 해방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 자유함을 절실히 깨달았던 사람이 마르틴 루터다. 루터는 반개교도 두려움을 느꼈던 사람, 교황과 황제의 권력 앞에 목숨이 위태로웠던 사람이다. 그런 그가 복음 안에서 자유를 발견한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 원래 이름인 루더(Luder)에서 이름을 루터(Luther)로 바꾼다. 자유라는 뜻이 담긴 이름이다. 본문에 자주 등장하는 “자유롭다”(32, 33, 36절), 자유는 헬라어로 ‘엘루테로’(ἐλευθερο)인데 루테에서 가져온 이름이 ‘루터’다. 루터는 복음 안에서 정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맛보고, 죽음과 그 이후의 심판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맛보고, 교황의 종교권력이나 세속권력으로부터 신앙이나 양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는 자유함을 맛본다. 그래서 자유는 종교개혁에서 너무도 중요한 개념, 제한받지 않는 근대 이상의 길이 여기서부터 열렸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현대인의 병 중 가장 심각한 병이 죄에 대한 무의식과 무감각 아닌가? 최고 지도층으로부터 서민들에 이르기까지 죄에 대한 의식이 없다. 절망이다. 일찍이 19세기 실존주의(實存主義) 철학자인 카에르케고르(Kierkegaard)는 이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했다. 이 병을 치유하지 않으면 인간은 자유로울 수 없다. 오죽하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했을까? 그런데도 미련한 인간은 가장 위험한 절망이 ‘자신이 절망에 빠져 있음을 모르는 절망’이라는 것을 모른다. 카에르케고르는 “돈 5달라를 잃었을 때는 심각해지는 사람들이 적자 자기를 잃은 것에 대해서는 심각해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라인홀트 니버(Reinhold Niebuhr)는 “인간은 아무리 반대 증거를 갖다 대어도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히틀러의 아우슈비츠,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스탈린의 굴락, 폭력, 강간, 학대, 낙태, 고문, 살인 등을 보면 인간은 죄의 종인 것이 분명하데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죄가 자유를 가로막기 때문이다.

### ◆자유, 예수님이 주신다

작곡가 헨델(Georg, Friedrich Händel)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가발을 잃어버렸다. 당시엔 매우 중요한 물건이었기에 난처해하고 있는데 한 아리따운 아가씨가 그 가발을 찾아준다. 근처 이발관에서 일하는 아가씨였다. 헨델은 너무 고마워서 그 아가씨가 일하는 이발관에 자주 찾아갔고, 둘은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 헨델은 그 여인에게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친필 악보를 선물로 준다. 심지어 헨델은 그녀와 결혼할 생각까지 했다. 그런데 그날도 이발관에 들렀는데 그 아가씨는 헨델이 온 줄 모르고 손님의 머리를 만지다가 무심코 다른 이발사에게 “머리 맡겨 악보 몇 장만 갖다주세요” 소리쳤다. 헨델은 조용히 그 이발관을 나왔고 그 후로 다시는 그 이발관에 가지 않았다. 불후의 명작 메시아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 예수님은 자백하면 죄를 사해주시다(요일18-9). 자유를 주시는 것이 자유는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 사상적 자유 정도가 아니다. 죄로부터의 해방,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고, 고귀한 피로 값을 치르고 주신 값진 보화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33절)며 반발했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정치적인 예측상태에 있기는 해도 압제자들로부터 결코 종교적 자유를 빼앗겨 본 적이 없다는 자부심이 대단했던 유대인들, 그들은 자존심과 교만으로 가득찬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자유를 주신다고? 우리와 무슨 상관인데?” 그런 자세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시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34절), 죄를 짓는 사람은 죄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성령의 감화도 받지 못한다는 것, 도저히 죄의 종속을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이다.

과학 문명이 극도로 발달된 현대라서 살만한가? 왜 사람들은 심한 불안을 느끼고 속박감 속에 살까?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사회 환경은 외부적으로는 안락과 편리하지만 내면은 부패로 인해 편지 않다. 사람도 아프고 지구도 아플 뿐이다.

1938년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세계 평화 회담이 열렸다. 그때 참석했던 영국 수상 네빌 챔벌레인(Neville Chamberlain)은 “우리 시대에 평화가 왔다”고 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 후인 1939년 9월 평화 회담에 열렸던 독일에서 전쟁이 시작되었다. 세계는 감잡을 수 없는 전문에 휩싸였다. 그 이후 세계는 만 번에 가까운 크고 작은 평화 회담을 열었지만 평화를 성취하지 못했다. 죄로 인한 불화는 어떤 정치적, 외교적 노력으로도 평화를 줄 수 없었다. 인간은 기근과 전쟁과 갈등 속에 살고 있다.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롬 8:2)라고 선언했다. 은혜받은 스펄전(Spurgeon)은 “국민 생활의 자유는 가치 있고, 종교의 자유는 귀하나 영적 자유는 지극히 값진 보배”라 했다. 또한 “인간은 나면서부터 자유지만 죄사슬에 매여 있다”고 했던 장 앙리 머르 드아우비그네는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 유일한 주권요 완전한 자유”라고 말했다. 자유, 예수님이 주신다.

### ◆자유, 믿음으로 누린다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 참 자유를 누리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만큼 자유롭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 잘 믿으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예수께서는 진리와 자유와의 관계를 한 가문에 매인 종과 상속권을 가진 아들의 관계를 예로 들어 설명하신다. “중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35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죄의 노예였다. 카에르케고르가 “절망의 반대는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라 했는데 막연한 것을 기대하는 희망은 중요하기는 해도 우리가 갖는 기대일 뿐, 그래서 불안하다. 하지만 신앙은 확실한 것을 바라보는 것, 인간의 논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인간의 논리로 부활이 가능한가? 아니, 부활은 기적일 뿐이다.

우리는 그 기적을 믿는다. 예수님은 이것이 우리의 실재라고 말씀하신다. 신앙은 여기에 모든 것을 거는 것, 이 신앙이 자유를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믿어야 한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36절). 출 21:2-6과 신 15:12-18에 의하면 이스라엘인 노예의 경우 6년 지나면 해방될 수 있고, 또 레 25:10에 희년(Jubilee) 제도에 의해 50년이 된 해에 모든 노예들은 해방될 수 있다. 이 기간이 아니더라도 노예

들은 친척이나 혹은 본인의 돈으로 속량될 수 있으나 금액이 엄청나 해방되는 일은 좀처럼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주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이다. 순간적이고 부분적인 자유가 아니라 영원한 자유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갈 5:1)고 했다. 더 이상 죄의 사슬에 매여 살지 말라는 것이다. 예수님이 풀어주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사랑과 죄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심으로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 이 자유는 만기만 하면 누린다.

1866년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예프스키(Dostoevski)는 『죄와 벌』이라는 작품을 발표하기까지는 참된 인생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겪었다. 청년 작가로서 글 좀 쓴다고 교만하기 그지없던 안하무인(眼下無人), 어느 날 비밀결사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시베리아 벌판으로 유형을 떠난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서 기약도 없는 유형 세월이 계속되었다. 낮에는 강제 노역에 시달렸고, 밤에는 어둠과 추운 골방에서 외로이 자신의 인생을 달래며 자냈다.

그때 누군가가 보내준 성경, 그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인생 말엽에 온 힘을 다해 작품을 하나 내는데 그게 바로 양심의 문제를 취급한 『죄와 벌』이라는 명작이다. 성경 말씀으로 거듭난 그는 양심의 문제를 해결 받았다. 번민 끝에 죄 문제를 해결 받은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다. 그가 깨달은 구절은 “육신이 양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랑을 낳느니라”(약1:5). 죄에 대해 깊이 깨닫고, 그 진리를 문학적으로 표현했다.

한편은 요한 웨슬리(John Wesley)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을 잘 벌어야 한다며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버는지 설교를 통해 그 방법까지 가르쳤다. 그날 부인을 따라 교회에 나와 감동을 받은 남편이 “야, 저 목사 설교 잘한다”라고 한다. 그는 웨슬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돈을 잘 모아 부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할 때 아내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저 목사 설교 끝내준다”며 좋아한다. 그런데 웨슬리가 이어서 “그것을 여러분을 위해서 쓰기보다 이웃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풍성히 나누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자 그 남편은 아내의 손을 꼭 잡더니 “저 목사, 오늘 설교 죽 썩었다” 그랬다.

이 세상은 욕심이 너무 많다. 죄악들로 가득 차 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우리도 죄와 무관하지 않다. 모두가 죄 아래 있는 죄의 포로, 큰소리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자격 없고 권한도 없지만,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가까이 보혈을 흘리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된 사람, 믿음 안에서 날마다 그 자유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SAMJIN 삼진제약**

## 해열 진통제 상비약 걱정 끝!

# 게보린<sup>®</sup>쿨다운정

광고심의필: 2022-1618-003300

【성분 및 함량】 아세트아미노펜 400mg + 벤조피타인 8mg + 리보플라빈 4mg + 아스코르브산 100mg 【효능 및 효과】 1. 두통, 치통, 발치 후 통증(통증), 인후통, 귀의 통증, 관절통, 신경통, 요통, 근육통, 건통(아깨골절), 타박상, 골절상, 염좌상(염좌상), 월경통(생리통), 외상통의 진통 2. 오한, 발열시의 해열(용법 및 용량) 만 15세 이상 및 성인: 1일 3회, 1회 1정 공복(빈 속)시를 피하여 복용한다. 복용 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제품문의전화: 080-082-1234(수신자 부담) www.samjinpharm.co.kr

# 용기



정태희 목사  
DCMI 선교회 대표

## 정태희 목사의 삶과 리더십

오래전 한국의 유명 목회자가 집필한 <생사를 건 교회개혁>이라는 책을 접한 적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세워진 기관이지만 인간이 모이는 기관이기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근원적으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생사'를 걸어야 할 정도로 교회가 빛나고 있다면 생각만 해도 슬프다.

'생사를 걸지 않으면 개혁할 수 없는 교회' 만

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용기가 없는 사람은 결코 교회를 바로잡아가지 못할 것이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특정 사건과 상황, 또 이에 관련된 사람을 독대하여 직면하는 것은 용기가 없는 자는 결코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다.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었다. 루터의 초상화에 나타난 짙은 입술, 넓은 턱, 거의 무표정한 얼굴 등은 루터가 가졌던 용기를 잘 보여 준다.

무모할 정도의 용기가 루터에게 없었다면 그는 결코 가톨릭교회의 수장과 맞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해 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용기의 결과는 유럽과 서양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언제 들어도 통쾌하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9척 장신 적장 골리앗을 향해 믿음의 물뿔들을 날렸던 다윗! 과연 이 싸움이 식은 죽 먹기처럼 쉬웠을까? 결코 그렇지 않

았을 것이다. 다윗에게 이 싸움은 '생사를 걸었던 싸움'이었을 것이다. 다윗은 이 싸움을 위해 다섯 개의 물뿔들을 집어 들었다(삼상 17:40).

이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있다. 처음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적중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 돌을 던지기 위해 5개의 돌을 준비했을 수도 있다. 또 다른 시각은 삼하 22:15-22을 통해 다섯 개의 물뿔들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 구절은 4명의 골리앗과 같은 블레셋 장수를 언급하고 있다-이스비브논, 삼,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 또 다른 키 큰 자.

어쩌면 다윗은 이들을 모두 자기가 제거하겠다고 생각해서 다섯 개의 물뿔들을 집어 들었을 수도 있다. 만일 후자가 사실이라면 골리앗과의 대면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리더는 계속해서 사람과 사건을 독대 직면하여 바로 잡아가야 한다. 용기가 없는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것이다.

내 아내의 자신이 일하는 부서의 매니저로 일을 한다. 매니저라는 직업의 특성상 그는 종종 자기 부서의 직원들과 독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주문해야 한다. 직장 동료의 문제점을 얼굴을 똑바로 보면서 지적하는 것이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일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한 번은 아내에게 물어보았다. "당신은 타인을 바로 잡기 위해 독대하여 직책하는 것이 쉽소?" 그녀의 대답은 뜻밖이었다. "결코 쉽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일 중 가장하기 싫은 일이 그 일이에요. 단지 꼭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할 뿐입니다."

타인을 대면하면서 그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일은 용기가 없는 리더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용기와 정직함을 요구하는 일이 있다. 그것은 리더가 자기 자신을 직시하여 자신의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이다.

혁명세력과 결탁하여 국가를 분열시킨 후 정권을 잡은 사람이라면 그가 얼마나 거친 사람인가는 추측이 가능하다. 분열 이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상승배로 이끌었던 여로보암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외쳤던 유다의 한 선지자는 두 말할 나위 없이 용기 있는 리더였다(왕상 13:1-10).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그는 벨엘의 늙은 선지자에게는 경계의 끊을 늦추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을 액면 그대로 믿었다.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은 그가 이 노 선지자가 천사로부터 받았다는 말씀의 진정성에 대해 집요하게 생각하며 의심하지 않았다.

리더는 항상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가?"라는 심각한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져야 한다. 자신을 직시하고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여 고쳐나가는 용기가 없다면 어떤 개인의 리더십은 개발되지 않는다.

## 제도나 사람이냐



김경성 목사  
구민교회

기독교의 초창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이러한 복음이 유대교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로마에도 전해집니다. 그 전파의 통로가 어디였을까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유대인 또는 유대교 회당을 통해서 시작된 운동이기 때문에 이 로마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대교 회당이나 그들 중심으로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클라우디오 황제(재위 주후 41-54) 때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유대인 중심의 소요사태가 발생합니다. 요즘 촛불 시위와도 같은 그러한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 때문에 주후 41년 처음에 집회금지령을 내렸다가 이로 해결되지 않자 다음 단계 조치로 주후 49년 강력한 글라우디오 칙령이 나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행 18:1-2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약 5년 후인 주후 54년 네로 황제가 집권하면서 이 칙령을 해제하고 유대인들의 귀환이 허락됩니다. 그런데 클라우디오 칙령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

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추방되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추방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네 이방인들끼리, 로마에 남아서 경건한 자들 중심으로 기독교 신자로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합니다. 이제 그 사람들도 와서 함께 기독교 공동체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방인 신자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을까요? 유대교의 선민사상(particularism)이나 개종자들에게 율법준수의 의무를 지우는 것, 할례를 강요하는 것 등은 유대교의 선교활동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입니다. 반면 헬라화된 그리스도교인들은 율법 준수와 할례 등에 대하여 유대교처럼 강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쉽게 이방인 동조자들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교 율법, 예를 들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문제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에 대해서 매우 강한 어조로 꾸짖었던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대노하여 그 표피만 잘라낼 것이 아니라 그 '지체'를 아예 잘라버리지 그러냐고 합니다(갈 5:2) 그 정도로 초대교회에서 경건한 자들로부터 시작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교의 율법 준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갈 4:8-9에 보면, 과거 그들이 하나님인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하였지만, 이제는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 즉 유대교 율법 준수라는 제도에 종노릇하려고 하는가 질타합니다. 이어 갈 4:10에서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

려됩니다."라고 합니다. 즉 제도주의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강력한 반대입니다. 사도는 할례라는 제도, 나아가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생각을 반대한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속되거나 정결하지 않은 고기는 먹지 못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행 11장을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버리게 된 과정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당신들한테 지금까지 선교하고 교회 이렇게 이룩하도록 이렇게 소위 창립자 역할을 했는데 내 수고가 다 헛되게 되었구나' 무로 돌아갔구나'라며 정말 한심스러워 한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4-15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저 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하 여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롬 14:5-6)

사실 사도 바울 자신이 그런 입장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는 전혀 그 톤이 다릅니다. 서로 용납해줘라, 서로를 받아들이려 하는 것이 이 본문의 요점입니다. 여기에서 유대교 율법 준수, 선민사상 이런 것들로 아이덴티티를 삼았을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그런 것들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약한 믿음을 가진, 믿음이 약한 사람들조차도 서로 포용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아마 고린도에 있었을 텐데, 고린도에서 로마를 가보지 못한 상태에

서 이 사도 바울의 생각은 로마 교회를 가서 로마 교회에서 선교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스페인으로 가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에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서로 논쟁을 해서 로마 교회가 깨질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사도 바울은 그것은 교회가 깨질 문제가 아니다, 이제 서로 용납해줘라'고 말합니다. 왜? 이미 자신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즉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가 드디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면서도 아직 유대교적인 바탕을 가진 사람들이 소수자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수자들을 용납해 주는 것이 신앙인의 본질적인 과제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입니다.

앞에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안 했는가? 그때는 유대교 율법 준수가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라고 할 때의 결정적인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를 믿는 믿음에 더해 유대교 율법의 규정들을, 그 제도를 따르는 것 그런 문제는 사소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왜? 교회에 분란이 되고 선교에 지장이 초래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보아야 하겠습니까.

롬 14:1-2의 결론이 맨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기니까?"(10절) 구체적으로 비판하고 또는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하지 말고 용납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12절). 한 마디로, 해결책은 "판단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바울은 롬 14장 본문에서만 "판단하다(krino)"라는 단어를 5회, 그 뒤에도 3회나 사용하였습니다.

자기 아이덴티티를 위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경멸하는 것은 지식사회학이 밝혀낸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본성을 넘어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기 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해야 형제에게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을 것인지를 판단하라는 14:13의 권면은 이를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제도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유대교 율법처럼 제도를 준수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구약성서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길 안 하나라며 비난하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할례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안 합니다. 율법 조항들 중에서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안식일 이것은 준수해야 된다, 또는 뭐 하면 안 된다.. 그런 몇 가지 율법 준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에 필수적이라는 생각은 잘못된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새 역사를 선포할 때 선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호헌총회 선언서(1953.6.10)인데, 여기서는 신앙의 본질을 주변적인 것들과 구분합니다. "1. 우리는 온갖 형태의 바리새주의를 배격하고 오직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음의 자유를 확보한다. 2. 우리는 전세계 장로교회의 태두리 안에서 건전한 교리를 수렴함과 동시에 신앙 양심의 자유를 확보한다." 오직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음의 자유, 이것은 분명한데, 주변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신앙 양심의 자유를 선포한 까닭일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제도를 넘어서서 본질, 즉 사람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어떻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나?" 사람이 주인이고 제도는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 기장 총회 제공

세상에 행복을 물로 더 행복한 세상!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민감동을 위해 거듭나겠습니다.

World Top K-water

환경부 |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 죽음과 열매

김한요 목사  
베델교회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날입니다. 사도바울은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담대히 외쳤습니다. “사랑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부활의 열매가 약속되어 있기에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심으로 그를 믿는 자 역시 죽음 너머 부활의 열매를 맺을 것을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명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죽음과 같은 현실이 우리를 덮고 있어도 앞으로 일어날 확실한 미래를 선포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형당할 십자가를 며칠 앞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 12:24)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아쩔 수 없이 당한 죽음이 아니라, 열매를 향한 계획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죽음이었습니다. 죽음과 부활, 두 모순된 개념이지만, 기독교인의 삶은 이 두 사이의 긴장 속에서 삽니다. 죽음과 같은 아픔을 견디고, 참아내면서 가정과 공동체를 살려내는 부활의 열매를 맺고 삽니다. 살려고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믿음의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영국 한인 목회자들의 초청으로 같이 목회의 시름을 나누며 격려하기 위해 갑니다. 이번에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한 분이 제가 감사로 오는 것을 알고 이멜을 주셨습니다. 웨일즈 하노비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처음엔 하노비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으로 이해했는데, 알고 보니,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던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바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셨습니다. 26살에 조선에서 성경책을 건네주고 참수당한 토마스 선교사는 당시 하노비 교회 담임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설교하는 그 강단에서 아들을 목사/선교사로 안수하여 파송했는데, 허무하게 죽는 것 같아 얼마나 망연자실 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한 성경책은 어느 여관집 밖에 도배되었고, 도배된 성경을 읽고 여관 주인이 예수 믿게 되고, 그 성경책을 가져다 준 12살 소년 최치랑이 예수 믿게 되고, 훗날 마펏 선교사가 이 여관에 머물며, 이 사정을 알게 되었고, 그걸 계기로 여관을 사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 교회는 후에 평양 대부흥의 진원지 장대현교회가 되었습니다. 최치랑은 나중에 장대현교회 초대 장로가 됩니다. 평양 대부흥의 열매로 한국교회가 일어났고, 세계에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으며, 지금은 토마스 선교사 파송한 후 158년을 돌아, 한인 목회자가 하노비 교회의 담임목사가 된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부활과 함께 한국의 바친 생명을 열매로 거두고 있습니다.

# 챔피언

이민규 목사  
웨드럴웨이제일장로교회



년에 발매된 그의 곡 중에 '챔피언'이란 노래는 그를 국내 축제 섭외 0순위 가수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당시 젊은이들이 접목하며 불렀던 이 노래는 챔피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진정 즐길 줄 아는 여러분이 이 나라의 챔피언입니다. 소리 지르는 내가 챔피언, 음악에 미치는 내가 챔피언, 인생 즐기는 내가 챔피언, 내가 챔피언".

여러분 진짜 인생 즐길 줄 알고, 소리 지르면 챔피언인가요? 챔피언이라는 뜻은 아원이 독특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챔피언의 뜻을 확 인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이는 진정한 챔피언은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그런 챔피언은 아닙니다. 그분은 소리 지르기도 침묵으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인생을 즐기기도, 오히려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음악 같은 것에 미치는 것보다, 오히려 그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하시며 오직 24시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 그 길을 가지 않으셨고, 바로 남을 위해 그것도 자신을 버리고 배신한 이들을 위해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자기를 배신한 자들을 변호하기 위해 자기변호를 취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중보하셨습니다.

마지막 운명하시는 그 순간 큰 소리를 지르며 돌아가셨는데, 그 말은 "다 이루었다"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갇힌 지 3일 후 그분은 그를 무덤에 가두었고, 역사상 그 누구도 그 힘을 이긴 적이 없는 사랑이라는 힘을 이겨 내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들은 그 사랑의 힘을 이길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그분이 사랑의 힘을 이김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확정해 주신 승리의 날입니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진정한 우리의 챔피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기뻐하며, 예배 합시다!

# 社說

## 의료공백 장기화, '결자해지' 요구된다

전공의 집단 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가 7주 차에 접어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얘기를 듣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담화를 한 지 하루 만에 나온 대통령의 전향적인 자세가 사태 해결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교회는 위기 극복을 위한 급식 기도를 호소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 공백 사태의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 다만 대부분이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는데 할애해 의료계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 후 전국외과대학교수협의회(전외교협)가 중재에 나서 윤 대통령에게 "전공의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달라"고 호소했고, 윤 대통령이 전공의를 직접 만나겠다는 메시지로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전공의 대표를 만날 경우, 관심은 정부가 의대 정원을 1년에 2000명씩 5년간 증원하기로 한 계획이 어느 수준으로 조정이 이뤄질지에 쏠린다. 이 문제가 전공의들이 반발해 병원을 떠나게 된 핵심 쟁점 사안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의사 증원 규모 재조정 문제를 비롯해 전공의 처우 개선, 지역필수 의료 자원, 의사 사법 리스크 경감 방안 등 의료 개혁 의제 전반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도 대국민 담화에서 전공의들을 향해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면서 증원 규모 재조정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발표한 의료 개혁방안은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 수위가 예상보다 크고 또 장기화하면서 그 피로감이 다시 국민에게로 돌아오게 된 게 문제다. 많은 국민이 여전히 의사 수 부족으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급격한 의대 증원이 불러온 의료계의 반발에도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 역풍이 정부와 대통령에게 부는 실정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게 된 건 이런 고심의 결과다. 최대 쟁점인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한 의료계를 향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한 것도 대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강경 일변도였던 과거의 자세와 비교할 때 유연하게 변한 건 틀림 없는 사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윤 대통령이 전공의를 만나겠다고 한 건 사실상 정부가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방안이 의사들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지만, 의료계가 더 좋은 의견을 제시한다면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전의교협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 윤 대통령이 만나자고 할 경우 조건 없이 만나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아 허

심탄화하게 대화하는 가운데 의외의 해결방안도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의료계의 태도다. 윤 대통령이 의료계를 향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달라며 한 걸음 물러서고 '사회적 협업체' 구성을 제안했음에도 '증원 백지화'가 대화의 전제 조건이라며 일체의 제안을 일축하는 분위기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인원력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의 도 넘은 정치 발언도 사태 해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의협 차기 회장으로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소신을 밝힐 수는 있다. 하지만 대통령과 부인을 향해 원색적이고 인격 모독성 발언을 서슴치 않는다면 SNS에 '의대생-전공의-개원의-교수들이 총선에서 확실하게 (국민의힘) 표가 날아갈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하는 등 선거 개입성 발언을 하는 건 의정 갈등의 본질을 흐리고 사태 해결에 방해가 될 뿐이다.

이런 현실을 보다못해 교계가 발 벗고 나섰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지난 1일 '의료 대란'과 관련된 호소문을 발표하고 3일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 선포했다. 한교총은 호소문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의료 대란으로 인해 신음하는 국민의 울음소리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응급 환자들은 물론 수술을 급하게 기다리던 중증 환자들은 마음을 졸이며, 걱정하는 가족들과 함께 전전긍긍하며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한국교회 전체가 하루 종일 금식하며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료 대란이 장기화되는 시점에서 한교총이 한국교회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회 전념하자고 한 건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의정 간의 첨예한 대립이 벌어지는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가중되는 현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깊은 우려가 한국교회로 하여금 나라를 위한 금식 기도에 돌입하게 한 직접적인 배경이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결의하고 병원을 떠나면서 시작된 소위 '백5'의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그 여파가 동네 병원으로 이어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럴수록 국민 불안감도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런데도 여야 정치권은 총선을 코앞에 두고 유불리를 계산하느라 적극적인 대안 모색을 꺼리고 있다.

'결자해지(結者解之)'란 뜻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일을 저지른 사람이 그 일을 해결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번 의료 공백 사태가 정부와 의료계에서 비롯됐고, 당사자 모두 책임이 있는 만큼 먼저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게 순서일 것이다. 한국교회가 기도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탠다면 갈등이 쉬 해결될 것이다.

# 기독교일보

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채형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내선 02-739-8119 /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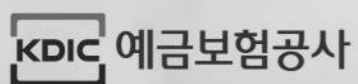
구독문의 02-6085-8166  
 광고문의 02-6082-8165  
 대표구좌  
 농협 355-0018-9278-03 (주)기독교일보사

미주 기독교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교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기사 제보는

독자께서 기사화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02-739-8119 혹은 press@cdaily.co.kr 등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주신 내용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기사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이 담긴  
당신의 예금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해 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의 지급을 보장해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 자살 예방위해 '자살수단 차단 사업' 추진

숙박업소, 번개탄 판매업소 등 '생명사랑 실천기관'으로 참여

보건복지부는 자살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일산화탄소, 농약, 교량을 지역별 빈도·특수성에 맞게 관리하기 위해 13개 광역(시도) 자살예방센터를 선정하여

2024년 자살수단 차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빈번하게 사용되는 자살수단인 번개탄(일산화탄소 유발 물질) 등을 관리하여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예방 지원사업으로 2018년에 시작되었다.

올해부터 지역별 특성이 있는 자살수

단을 보다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살수단 차단 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시도에서는 일산화탄소·농약·교량 중 선택(중복 가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자살수단 차단 사업'을 통해 번개탄·농약 등 판매업소(슈퍼점포 등)와 모텔·호텔 등 숙박업소는 '생명사랑 실천기관'이 되

어 자살예방센터와 협력한다. '생명사랑 실천기관'으로 지정되면 슈퍼점포 등은 판매방식을 개선하고, 숙박업소는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하거나 숙박객의 자살 징후를 관찰·신고하는 등 자살예방 활동을 하게 된다. 2023년까지 전국에 6411개의 생명사랑 실천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와 전라남도도는 자살이 빈번

하게 발생하는 교량에 안전시설 설치 또는 자살예방 상담전화번호(109) 안내를 부착하는 등 교량에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이영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수단 차단 사업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살수단을 관리하기 위해 판매업소, 숙박업소 등 민간과 자살예방센터가 협

력하여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라고 강조하며, "자살수단에 대한 접근 제한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한 자살예방 전략 중의 하나이며, 자살수단에 대한 관리 강화가 전체 자살률 감소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서다운 기자

## 경기도, 자립준비청년에 취업교육 수강료 지원한다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지원 계획 발표

경기도가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취업교육 수강료를 지원하고, 찾아가는 특화 자립교육 대상을 가정위탁아동까지 확대한다.

경기도는 올해 자립준비청년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자립준비청년들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및 그룹홈,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자나다 만 18세가 돼 시설에서 나온 뒤 독립해야 하는 청년들을 말한다. 도는 올해 자립준비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준비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취업을 위한 각종 교육 수강료는 월 40만원 이내,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격증 시험 응시료도 지원하는데 연간 40만원 이내에서 가능하다. 이 밖에도 취업박람회나 기업탐방 등 취업 관련 체험프로그램 참가비를 4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항목들은 중복 지원이 가능하며 올해 지원 대상은 300명이다.

또, 자립준비청년 100명을 초청해 진로 탐색이나 면접기술 등을 교육하는 취업교육, 컨설팅, 취업준비설명회 등을 연간 5회 개최할 예정이다.

보호종료 예정 아동들을 위해 추진하는 찾아가는 특화 자립교육 대상자를 올해는 가정위탁 아동까지 확대한다. 찾아가는 특화 자립교육은 15세 이상 아동에게 요리, 집 관리, 공공기관 활용, 감정 다루기 등 자립에 필요한 8대 영역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214명에서 올해는 지원 대상이 260명으로 늘어났다.

이 밖에도 도는 경기복지재단에서 운영하던 희망디딤돌 사업을 올해부터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희망너울이' 직접 운영하도록 개편했다.

'희망디딤돌'은 만 18세 이후 시설에서 퇴소해 또래보다 이른 나이에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주거지원

공간으로 화성시 봉담읍과 고양시 일산동구에 마련됐다. 도는 자립준비청년의 주거지원과 보호종료 예정아동의 자립체험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에서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자립준비청년의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자립준비자금(1천500만원) 534명, 자립 수당(월 50만원) 1천852명, 자립지원통합서비스(월 40만원 사례관리비 지원) 515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홈페이지(www.gg.go.kr)와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희망너울(www.ggjrip.or.kr)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우리 기자

## 서울시, 가임기 남녀 '임신 건강 관리' 올해도 무료검사 지원



2023년 총 29402명 신청, 전년 대비 65% 큰 폭 증가 건강검진 및 생식기능검사 등 여성 15종, 남성 14종 무료 실시

서울시는 모든 가임기 남녀에게 임신위험 요인을 집중 관리해 주는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참여자가 약 3만명에 이르고 신청자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2017년부터 모든 가임기 남녀대상으로 사전 임신 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

결혼과 상관없이 가임기 남녀의 임신 전 건강위험요인을 조사해 개선하고, 임신관련 검사를 통해 난임을 예방한다.

또한 기형아 예방을 위해 염색체를 제공하는 등 건강한 임신을 위한 사전

관리를 지원한다. 검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연중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로 8년째 접어들고 있는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을 선행적 정책 모델로 하여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지난 1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 선도적으로 시행한 남녀임신준비 사업을 지속 추진해 가임기 남녀가 더욱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우리 기자

## 미래에셋박현주재단, 나만의 책꿈터 지원사업 참가기관 모집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올해 나만의 책꿈터 지원사업' 참가기관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나만의 책꿈터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청소년들의 가정에 개인별 독서공간을 선물하는 사업이다. 아이들이 책을 보다 가깝게 느껴며 독서

의 유익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오는 19일까지 지원 희망 기관의 접수를 받는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기관 모집 후 미래에셋박현주재단

은 아동들에게 원목 책꽂이와 이름이 새겨진 미니 간판, 연필 및 관공서, 독서수준 등을 고려한 추천도서와 본인 희망도서가 담긴 꾸러미를 전달할 계획이다. 책에 대한 흥미를 더할 수 있도록 독후활동 키트도 제공한다.

미래에셋박현주재단 관계자는 "아이들

이 원하는 도서를 직접 담아 자신만의 책꽂이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책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높아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전해 들었다"며 "책꿈터 사업을 계기로 아이들이 다양한 책을 접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자신의 경험을 확장하며 꿈을 키워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우리 기자

## 도플소프트 '지하철종결자', 영어·일본어·중국어 지원

별도 번역 과정 없이 한국 지하철 정보 확인 가능

NHN의 모빌리티 서비스 자회사 도플소프트가 '지하철종결자' 앱에 다국어 서비스를 추가했다고 3일 밝혔다.

지하철종결자는 실시간 지하철 운행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의 이동 경로와 예상시간, 노선도, 요금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교통 서비스 앱이다.

도플소프트는 해외 관광객 수요에 맞춰 앱에 영어·일본어·중국어 모드를 지원하는 다국어 서비스를 도입했다.

외국인도 별도의 번역 과정 없이 경로 검색과 실시간 도착 정보 등 한국 지하

철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도플소프트 측은 "국내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대중교통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국내 이용자는 물론 글로벌 이용자들도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서비스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월간 활성 이용자수(MAU) 300만명 이상을 기록한 지하철종결자는 최근 시니어층을 위한 '시스템 설정 글자 크기' 기능을 적용했다. 또 승강장 별 열차와 문 사이의 이격거리, 스크린 도어 설치 여부, 승강기 위치 및 운행여부 제공 등 교통 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서다운 기자

성명서, 칼럼, 논평 등 언론에 게재된 송암 권태진 목사의 글 모음집

### 대한민국 현대사 30년을 정리한 '역사 교과서'이자 '역사 지침서'

# 광야에서 희망을 외치다

권태진 지음 | 170x240mm(양장) | 400쪽 | 33,000원 | 성빛출판사 | 2023년 10월 15일 발간

최신간 NEW

저자 : 송암(松巖) 권태진


저자는 1978년 10월 15일 천막 하나로 교회를 세운 군포제일교회의 담임목사이다. 설교들과 신앙한 가족이 된 그의 사역을 보고 사람들은 어비목회라 불렀고 끝없는 사랑의 돌봄을 어비복지라 칭했다. 그는 한국 교회의 본질 회복과 연합 운동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순종하며 섬김으로 맞이하는 목회자이다. 예장 합신 총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등 총회와 연합기구의 수장으로 지역, 교단, 교파를 초월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되는 운동을 계속해왔고 일남전(영호부대) 참전용사로서 피 끓는 애국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다. 그는 '송암'이란 호를 가진 시인이기도 하다. 1994년 문예사조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으며 국제PEN회원, 한국문인협회원으로 시 열여덟 권의 시집, 열두 권의 설교집, 열세 권의 에세이 등 총 44권의 저서를 집필했다. 한국전송가개발원의 이사장으로서 찬송 작사가로도 활동 중이다. 그는 '오직 예수님이 희망'임을 삶으로 전하며 쉬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향해 달려간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BIRMINGHAM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 박사(D. MIN.), LOUISIANA BAPTIST UNIVERSITY 명예철학박사(Ph.D.),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사단법인 성민원의 이사장이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96회 총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30대 대표회장, 한국교회연합 89대 대표회장 등을 역임했다.



## 성경과 함께 읽는 성경 1장 칼럼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행하는 성경여행서!




성경의 모든 장을 칼럼으로 저술했습니다. 성경 내용이 이해되고 계속 읽혀집니다. 정통 신학과 교리에 충실하고 적용이 탁월합니다. 경건을 갈망하는 크리스천이 기다려 온 책입니다. 기독교 가정의 자녀에게 권요합니다. 말씀사역자의 평생 자료로 사용됩니다.

저자 | 김명제 목사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예담교회  
발행 | 하우출판사 (온오프라인 판매) (각권 484면, 권당 24,000원)

온라인 판매처 | 알라딘 yes24 영풍문고 KYOBO 교보문고




제1권 창세기-룻기




제2권 사무엘상-욥기



제3권 시편-이사야



제4권 이사야-마태복음





제5권 마가복음-요한계시록

NAVER 성경 1장 칼럼 | 성경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책을 펼쳐라 - 교보문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60:1)

## 다문화복음방송

(Multicultural Gospel Broadcasting Company)

대표 김덕겸 목사

다문화복음방송을 시청하시려면

1. 홈페이지([www.mgbc.tv](http://www.mgbc.tv))에 접속
2. 메인 화면의 국가나 국기를 선택
3.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 듣기

\*\*이미 방송된 내용이나 현재 방송 중인 방송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  
플레이스트에서 다문화복음방송 앱 다운로드 하시면 13개국어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292-1 동아상가 402호  
대표번호: 010-8228-5213

## 하늘문을 여는 기도대성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행1:5)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자!

신현영광교회 본당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담임목사 박만규  
T 010-3739-4512

## 장대수 목사의 목요 말씀찬양을 통한 치유 대부흥성회

[ 부흥회 특징 ]

- 불같은 찬양
- 생수같은 말씀
- 강력한 축사
- 우울증해결

강사 장대수 목사  
시흥사랑의교회 담임장  
대한기독교부흥사회 대표회장

국내최초 우울증 원인분석연구 박사학위 취득  
부흥회 경력 30년의 장대수 목사의 능력있는 설교를 경험하세요

장소 | 시흥 사랑의 교회  
시간 | 매주 목요일 7시  
문의 | 010-6325-3916  
경기도 시흥시 하상동 377-2 삼성프라자 304호

미디어 선교를 선도하는 방송  
**지구촌 예수복음 선교방송**  
[특징] 오직! 예수님 말씀만 전하는 방송  
\*유튜브 ▶ 검색창에 장대수 목사를 검색해 보세요\*

## 획기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아이디어 사업

기/승/전/치킨집 or 커피숍?!?  
국내 레드오션 NO!  
글로벌 비즈니스가 해답이다

세계1위가 될 사업도,  
인류의 진보를 위한 계획도,  
예산이 없다면 산산조각이 납니다  
아이템은 있으나 예산이 없는 저를 도와주시면 예산은 갖고 계시나  
아이템이 없는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2025년 사업완성  
국민은행 975901-00-026853  
헬프사람넷 조현철  
한구좌1억 8명 제한

\*투자 진행시: 변호사 공증 및 10%배당 서류전달 (단계별 수익 창출과정 일목요연 프로세스 제공함)

전화: 010-9897-2003

## 말씀 가운데 자연과 함께 사는 좋은 사람들의 요양원

안양 비산동 교회 소속 **소망의동산실로원**


2021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소망의 동산 실로원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쾌적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들에게는 수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주소 | 경기 화성시 봉담읍 분천길 185  
예배시간 | 주일 오전 9시 / 수요일 오전 9시 (이보영 원로 목사님)

노인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등급)으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인 수발과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모십니다.

입소 상담 문의 | 031-227-1460 / 원장 010-6217-4208




made in NORWAY

## 그냥 오메가3가 아닙니다! 생체이용율이 높은 rTG형태 노르웨이 직수입 하프물개 오메가3

3중 기능성 | 건강 기능식품

- 원활한 혈액순환!
- 혈행건강과 뼈건강을 동시에!
- 항산화 건강까지
- 하루 2캡슐
- 고품질 노르웨이산
- 하프물개 오메가3



## 최초판매기념

Sale 57%

1박스(120캡슐) x 3박스  
지금 주문하시면 선물용 쇼핑백 무료 증정!

정상이 360,000 원  
할인가 155,000 원

우체국 107045-02-188054  
농협 301-0336-3023-11  
예금주:김종덕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문의 : 010-5775-2671

## 신간 **하나님이 사용하신 10가지 도구**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인간은 생각을 통해 도구를 사용하며 일을 해온 유일한 존재로서 인류의 문명을 극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과 사건들도 이러한 '생각'과 '도구'로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왔다. 모세의 마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2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를 탈출하게 하였고, 어린 소년 다윗이 평상시에 사용해 온 돌멩이는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구한 무기가 되었다. 베드로의 생계를 유지하게 했던 그물은 주님의 손에 의하여 사람을 낚는 그물이 되고 사랑의 그물이 되어, 세상의 빛에 걸린 인생을 구하는 영적 능력의 그물이 되었다.

이 책의 저자들이 제시하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사용하신 열 가지 특별한 도구들'은 노아의 방주, 모세의 지팡, 기드온의 햇불과 나팔, 다윗의 돌멩이, 다윗의 비파와 시와 춤, 베드로의 그물, 소년이 가진 오병이어 골고디의



십자가, 바울의 로마 시민권, 교회이다. 저자는 책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언약은 그가 인간의 생명을 새롭게 하고 지지하시겠다는 전 인류에게 하신 약속이다. 홍수의 바다 위에 표류하였던 노아의 방주는 장차 임할 구원의 표시였으며, 죄로 말미암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이룰 것이다. 방주 속에 각종 짐승들이 포함된 것을 미루어 볼 때, 노아의 방주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창조의 조짐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백성을 중보하는 지도자였다. 그러나 그는 힘을 잃어갔다. 그 힘을 잃게 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돌리면서 시작되었다. 모세의 손에 잡힌 지팡이는 어떤 때는 자신을 지탱해주는 힘이었고, 앞으로 밀기도 하고 차기도 하고 하늘을 향해 들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켰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을 품고 하나님께 백성의 중보자로 나설 때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마치 하나님인 양 백성의 죄를 고발할 때는 지도력을 잃었다. 모세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본다. 지팡이로서의 우리를 본다. 손을 떠난 지팡이는 뻔이 될 뿐이다. 지팡이는 주인의 손에 잡혀 있을 때 본래의 사명을 다한다"고 했다.

끝으로 저자는 "노아의 방주는 멸망하는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야 하는 교회이다. 노아의 방주는 썩어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온 자들을 구원하는 교회(예루살렘)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어야 한다. 노아의 방주의 의미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기 위하여 모이는 것이며 함께 모여서 은혜를 받는 곳이다. 방주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있을 때, 방주는 마침내 아라랏산 봉우리에 걸리게 된다. 방주 안에 있던 모든 생명들은 이 세상에 생명을 퍼뜨리게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라는 방주에 들어선 이들은 은혜를 체험하고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일이 바로 현장에서 나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주의 능력은 반드시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 4월, 작가들의 말말말



개신교 신학에서도 아우구스티누스의 위치는 역시 대단하여, 개신교의 창시자들인 루터와 칼빈의 신학의 기원을 아우구스티누스로 보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이 두 신학자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영과 문자』와 같은 책들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신의 노년에 펴낸 이단과의 논쟁을 하며 썼던 글들이었습니다. 개신교의 토대를 이루는 원칙적인 오대 솔라는 그의 사상으로부터 유래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교육을 받은 과정을 살펴보면, 그는 전형적인 로마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국민 서사시 『아이네이스』를 써서 로마인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던 베르길리우스의 책을 거의 외우다시피 했고 라틴 고전들을 충실하게 공부해서 그의 나이에 배워야 할 내용들을 충분히 습득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특히 웅변에 뛰어나서 학교에서 상을 받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나중에 그의 직업이 될 수사학 교수의 자질이 이 시기에 벌써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는 15세에 타가스테에서의 교육을 모두 마쳤으나 졸업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1년 동안 머무르게 되었는데, 이는 아버지가 그를 카르타고로 보내기 위해 돈을 모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김용주 '들어서 읽어'

##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청년부 10배 성장한 교회

### 「월간목회」 4월호, 교회들의 '청년 목회 이야기' 소개



지난 3월호의 주제를 '청소년부'로 정했던 「월간목회」가 4월호에선 '청년부'를 주제로 했다. 「월간목회」는 올해 1월호부터 7월호까지 한국교회의 '희망'에 대해 다룬다.

「월간목회」는 "청년이 가진 독특한 힘이 있다. 청년은 여전히 미숙하지만 끊임없는 도전으로 그것을 넘어설 수 있고, 현실에 안주하거나 불가능에 포기하기보다 가치 있는 일에 가까이 헌신함의 상징"이라며 "교회 안 청년의 부재는 공동체가 이러한 독특한 힘을 잃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을 모아 다시 힘을 내야 한다. 청년 사

역의 위기를 말하는 요즘, 그럼에도 청년들이 모여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려는 교회들이 있다"며 "이들의 청년 목회 이야기를 통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청년부에 관한 비전을 보다 선명하게 그려본다"고 4월호 특집에 대해 소개했다.

「월간목회」 4월호에 실린 교회 중 한 곳인 청암교회는 서울 구도산에 위치한 76년 전통의 교회로, 이미 고령화가 진행된 상황에서 '청년부 부흥'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교회의 미래는 청년부에 있기에 무모한 도전을 시작했다고.

청암교회는 '왜 우리 교회에는 청년들이 모이지 않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청년부 활성화를 위한 비전을 전 교회적으로 선포했다.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청년부는 10배의 성장을 이뤘다.

인터뷰 청년교회는 15명에서 1천2백 명으로 성장한 화양교회 내 독립교회다. 이 교회의 부흥은 새벽을 깨우며

드렸던 기도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기도의 응답으로 보내주신 청년들이 말씀의 생명력을 경험하게 했고, 예배 시간을 통해 받은 은혜를 개인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또 공동 기도문을 통해 하나의 비전을 품고, 동일한 영적 흐름으로 공동체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갔다고 「월간목회」는 전했다.

시냇가푸른나무교회 청년부는 청년교회로 독립했지만 단절이 아니라 계승과 발전을 비전으로 삼았다. 모교회의 7대 비전과 지성, 덕성, 야성, 영성이라는 네 가지 성품에 대한 강조를 계승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청년 사역을 세웠다고 한다.

「월간목회」는 "자신의 삶을 가까이 헌신할 가치를 찾지 못해 묵발하고 있던 청년들에게 '예배와 기도'라는 핵심 사역을 중심으로 자체들의 다양한 은사와 가치들이 개발되고 발휘될 수 있는 장을 열자, 가까이 참여하고 있다"고 이 교회를 소개했다.

김진영 기자

## 신간 **'법의 주인을 찾습니다'**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알바 계약서 쓰는 일부터 집을 사고파는 일, 교통사고의 책임 공방과 부모로부터의 상속 문제까지. 우리 일상 곳곳에 법을 통하지 않고 되는 일은 없다.

법은 여전히 어렵다. TV에서 생활법률 프로그램을 아무리 봐도 법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인 법의 조문을 몰라서가 아니라 법의 정신과 원



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법 정신을 키우기 위해서는 애초에 법이라는 게 왜 만들어졌는지, 법체계는 어떻게 구성됐는지 소송과 재판과 변호를 구성하는 원칙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책 '법의 주인을 찾습니다(지외인)'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법학 교양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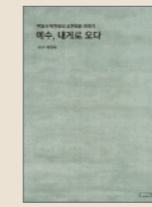
20년간 헌법을 연구한 법학자 김진환은 이 책에서 미국과 독일에서의 연구와 사례를 바탕으로 현대 법의 원리와 정신, 보통의 사람들도 법률가처럼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

음을 찬 알려준다.

왜 복수는 국가만 할 수 있을까? 노인들의 운전 급지는 바람직할까? 술은 나쁜데 왜 금지하지 않는가? 독일인들이 부동산 계약을 잘하는 이유는? 판사가 무죄인 것을 알 아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가 의대 정원에 개입한 이유는? 미국 로스쿨 수업은 왜 문답식일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개헌 내용은 무엇인가?

저자는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어떤 법도 두렵지 않다고 말한다.

이수지 기자



우리에게는 남에게 말 못 할 시간과 장소가 있다. 폭로되면 무너질 것 같은 부끄러운 곳이 있다. 예수는 그곳에서 나를 보았다고 말한다. 그 장소는 내게 그렇듯이 예수에게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예수는 일부러 그곳을 바라본다. 하지만 그 눈길은 심판과 정죄의 눈길이 아니다.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감춰진 두려움을 읽어 내고, 나를 지지해주고 믿어주는 파스한 눈길이다. 예수의 눈길은 통찰력으로 번득인다. 나다니엘에게서 진실과 정직이라는 자질을 읽어냈듯이 니고데모는 당대 최고 랍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엄격하고, 전통적인 유 대교는 그의 삶이었고, 문화였다. 거기서 그는 아버지처럼 엄격하고 권위적인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은 무한한 힘을 가졌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였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를 판단하고 심판했다. 하지만 초월적이고, 거부장적인 하나님에게서 니고데모의 마음은 서서히 멀어지고 있었다. 나사렛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은 너무나 신선했다. 그가 말하는 하나님에게는 리듬과 생동감이 있었다. 지금까지 그에게 익숙했던 딱딱하고 무미건조한 하나님과 달랐다. 이 하나님은 그를 자유롭게 해주고, 숨 쉴 공간을 열어주는 것 같았다. 예수의 말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었다. 그래도 그의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은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깊은 곳에 파스함이 느껴졌다. 그의 마음에 새로운 역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박현욱 '예수, 내게로 오다'



요즘은 온갖 어려움과 쓰디쓴 삶의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그 인생의 기동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한 시대를 진실로 구하는 길이라는 것을 그는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지닌 이가 겪는 고초는 고초가 아니라 종국에는 은혜의 재료가 된다는 것을 그는 흔들림 없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낡은 인생을 되풀이하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삶에 다가오셔서 결정적으로 개입하고 움직이시면 바로 그 순간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 인생의 태초입니다. 카이로스의 순간입니다. 사랑은 진정, 바람을 가르며 함께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서로 아픈 다리 기대어 가며 험한 길 가리지 않고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위력이 가진 비밀이자 축복입니다. 영혼이 궁핍한 이 시대, 사랑의 띠로 이어져 모두가 정겨운 하나가 되는 그런 기쁨을 나눌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김민웅 '하늘은 나를 열고'

크리스천투데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따뜻한 신앙인들**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가?  
'열광 있는 말씨와 쉬운 문체로 전하는 변전의 예언자의 메시지'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추천사**

장로님께서 칠수를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갑 장로 (구세군 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진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준일 목사 (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제가 읊어낸 책입니다. 박호준 목사 (양원내산교회)



## 절망의 골짜기에 부는 희망의 바람

완전히 절망하라, 새로운 세계가 보일 것이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興亡盛衰)는 하나님 앞에 달려 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달려 있다. 정치가 잘되고 못되고도 하나님께 달려 있다. 경제가 성장하고 하락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달려 있다. 지금 어려움만 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라는 희망과 용기를 가지면 반드시 좋은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럼 이런 절망의 골짜기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철저히 절망하면 새로운 세계가 보인다.

스위스의 유명한 정신의학자 엘리자베스

스 퀴블러 로스(Elizabeth Kubler-Ross: 1926-2006)는 자신이 중풍병으로 죽기 전에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했다. "절망 속에서 속히 빠져 나오려고 하지 마라. 절망하려면 100% 절망하라. 철저히 절망하면 앞이 보인다. 완전히 절망하라,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보일 것이다."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물속에 안 들어 가려고 발버둥 치면 철수록 물속으로 더 깊이 빠져게 된다. 그러나 물에 빠져서 들어가도록 내버려두고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발로 바닥을 차고 물위로 다시 올라 오게 된다.

절망적인 상황 자체가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다. 절망 끝에는 희망과 새로운 역사가 있다. 절망을 두려워하지 말자.

둘째, 말씀대로 살면 희망을 잃지 않는다.

나폴레옹(Napoleon Bonaparte : 1769-1821)은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

다. 모든 것을 정복하는 능력을 가진 생명체다"라고 말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꿈과 희망을 주신다.

1517년 독일의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다. 그 당시 성경은 라틴어, 희랍어로 되어 있어서, 다른 나라 민족들은 성경을 못 읽었지만 독

일 사람들은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읽을 수 있었다. 그 결과 독일은 세계적인 민족이 되었고, 성경말씀을 통해서 우수한 인물이 많이 배출되었다. 시인이자 소설가인 괴테, 작곡가 베토벤, 철학자 칸트와 헤겔, 작곡가 바흐 등이 그 대표다.

미국의 의사, 박사, 변호사 등 존경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85%는 부모들 대부분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그 부모에게 신앙교육을 받고 자란 인물들이 미국 사회의 훌륭한 인물이 되어 미국을 이끌고 있다. 말씀대로 살 때 희망이 있다.

셋째, 성령님의 역사가 희망을 준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직접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이 하나님의 생기가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다시 살아난다. 절망과 죄악에 빠져 죽은 것 같은 사람도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다시 생기를 얻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성령님의 역사가 희망을 준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 성령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다. 마른 뼈 같은 대한민국, 더 이상 희망이 없어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 다시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절망의 골짜기에도 희망의 바람이 부는다.

故 김성광 목사

##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기적



김지윤 박사

한 가족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그 다음엔 어머니, 그리고 언니의 손에 이끌려 자녀들이 차례로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처음 그 가족을 본 느낌은 그저 막막할 지경이었습니다. 이렇게 망가진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까, 내가 뭘 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상담을 진행해 나가야 할까... 그런 걱정을 뒤로 하고 기도하면서, 가족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만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기를 몇 개월 이어갔습니다.

부부관계는 깨어질대로 깨어졌었고, 서로 유령을 대하듯 같은 집안에서 별거 중이었습니다. 그런 부모를 오랫동안 지켜보며 살아왔던 아이들은 분노와 짜증과 무기력이 온 몸에 배어 있었고 몇 가지의 중독 증세와 대인기피증과 성격장애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중심인 부부의 모습이 무너져있으니 그 가정 모두가 건강하지 않은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받아오던 어느 날, 아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자 날마다 새벽기도를 나가며 기도하기 시작했고, 가정의 회복과 가족이 모두 주님 품에 돌아오기를 기도했습

니다. 아내는 외도와 폭력을 일삼았던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만 다닌다면 모두 용서하고 남편과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저렇게 매몰찬 아내가 예수 믿고 교회다니는 것이 가증스럽다고 말했고, 교회와 기독교를 혐오한다고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심지어 상담자인 나에게까지 기독교인이라고 묻고 그렇다고 대답하자, 반정대며 혀를 끝끝 찡찡했습니다. 그 후부터 그 남편은 상담실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변화가 나타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강박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야만 가능한 일 같았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나가면서, 놀랍게도 정말 기적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중독에 빠져있던 아이들의 어두운 얼굴에 밝은 빛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의 어머니 찾아와, 남편이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면 활짝 웃었습니다. 부부는 다시 한 방을 쓰기 시작했고, 아이들에게도 부드러운 태도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심각한 게임 중독에 빠져있던 작은 아이는 이제 조금씩 중독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했고, 각자의 방안에 갇혀있던 가족이 자신의 문을 열고나와 거실에 모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집에서는 간간히 웃음소리가 새어

나오기도 하고, 두런두런 대화하는 소리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좀 더 치유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을 보면서, 너무나 망가져서 어찌할 수 없어보였던 가정이 회복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저절로 할렐루야, 소리가 나옵니다. 상담자로서의 보람도 크게 느껴지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만지심의 손길이 놀라웠습니다. 그 아내의 피폐해진 마음에 주님의 햇살이 스며들어가 변화가 되더니 마침내 온 가족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일마다 교회에 가게 되었고, 수많은 심리적 영적 병증들이 순식간에 치유되는 것을 보면서 온전한 치유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의 상담실에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망가진 사람들이 회복의 여망을 안고 찾아옵니다. 때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때로는 마지막 남은 안간힘으로... 때때로 감당하기 힘들 때도 많고 지칠 때도 많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래도 찾아오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망가졌다 해도, 반드시 희망이 있습니다.

지켜나 혹은 늦은 밤 운전 중에 다급한 전화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루종

일 혹사한 목이 잠기고 몸이 자쳐서 운전 중에 상담을 하는 것이 어려워 나중에 전화화를 하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거절당한 것으로 알고 전화를 하지 않는 분들이 혹시 자살 직전에 마지막으로 구원의 손길을 편 것은 아닌지 마음이 쓰일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메일을 보내주면 더 낫습니다. 먼 외국 땅에서 이메일로 마음의 고통을 호소해 오는 분들께 일일이 답장을 보내는 것도 만만치는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짧은 편지 속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시길 기도하며 반드시 답장을 보내곤 합니다.

마음의 고통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고 전문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면 정식으로 상담을 신청하고 몇 회기에 걸쳐서 단계별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경정신과의 약물이 꼭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물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알고 확실하게 믿는 상담자와의 상담은 완쾌를 앞당길 것입니다. 최근에는 곳곳에 심리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생기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면 어려움을 도울 곳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치유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문을 두드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꼭 명심할 것은, 단순히 학문적이고 심리적인 치유만이 아닌 하나님

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게 하는 상담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 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아픔이나 절망 중에서도 소망과 치유가 밀물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기적은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김지윤 박사(심리상담학 박사, 한국상담심리치료센터 대표)

**은혜 한 장**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기독일보 www.cdaily.co.kr

#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누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을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당신의 어깨는 건강하십니까?  
이영석 정형외과 전문의 지음  
유재철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 감수

TOP 100 YES 24 건강에세이 건강기타 / 네이버 책 베스트 도서 선정

정형외과 전문의가 전하는 원인과 치료, 운동법을 가이드

피톤치드

# 성지순례 독일 통일을 이뤄낸 ‘실천적 공동체 영성’을 찾아서(1)

**1. 축제, 그 후에 남은 것은**  
드디어, 그토록 고대하던 베를린 입성. 베를린에 그렇게 오고 싶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저 무너진 장벽, 냉전의 아이 콘인 동시에 탈냉전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싶었습니다. 통일을 염원하여 그 장벽을 무너뜨린 베를린 사람들(Berliner)의 심정을 잠시나마 깊이 공감하고 싶었지요. 눈에 보이는 유적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과 정신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독일 통일의 실천적 공동체 영성, 교회의 역할(과거)과 가능성(미래)을 말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의식 있는 젊은 목사님으로부터 독일 개신교회 연합(EKD·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받을 수 있었고, 그것은 통일 이야기를 향한 나의 열망을 비춘 한줄기 빛이었습니다. 나의 열망을 공감해 준 EKD 비서의 도움으로 통일 당시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홀 박사님(Dr. Holl)과 연락이

닿았고, 베를린 EKD 회관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통일에 있어 교회의 역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동독교회는 자유(liberty)와 민주주의(democracy)라는 개념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동독 사회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고 생각될 때도 동독교회는 그걸 보존하고 있었지요. 동·서독 교회가 서로 만나 교류하면서 동독교회는 점차 소위 ‘계급장 떼고’ 라운드 테이블에서 대화하는 서독의 문화에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일 이전 동독교회 내에서만 큼은 어느 정도 체제에 대한 비판이 가능했지요. 1989년 니콜라이교회의 평화기도회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동독교회가 이를테면 민주주의의 핵심 개념을 보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지요.”  
과연 독일 통일 당시 교회가 했던 역할은 부인할 수 없이 선행했습니다. 동독 비밀경찰인 ‘슈타지(Stasi)’에서 일했던 공산당 간부는 독일교회의 월요시위



독일 통일의 상징 브란덴부르크 문.



EKD 회관.

(Montags-Demonstrationen)를 회상하면서 훗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한 대비를 했지만, 촛불과 기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었다.”  
20년 전 통일 과정에서 종교의 역할이 그처럼 의미 있는 것이었다면, 2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홀 박사님과 그의 만남을 통해 통일 전후 종교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잠겼습니다. 독일교회는 통일 전에는

‘제도로서의 교회, 즉 외적 역할을 감당해야 했다’면, 통일 이후에는 내적 역할, 즉 ‘종교의 근본적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재통일 이후 독일에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오씨(Ossi)’와 ‘베씨(Wessi)’. ‘오씨’는 동쪽을 의미하는 독일어의 Osten에서부터 생긴 말로, ‘가난하고 게으른 동독 놈들’이라 구동독 지역 출신을 비하하는 표현, ‘베씨’는 서쪽을 의미하는 Westen에서

유래한 것으로 ‘탐욕스럽고 거만한 서독 놈들’이라 구서독 지역 출신을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오씨와 베씨 사이의 갈

등은 한국의 경상도-전라도 간의 갈등만큼이나 공공연하게 드러나고 있지요.  
이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속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욕망을 거부하고 죄를 지적하여 회개하게 만드는 복음이야말로 욕망과 죄의 결과물인 수많은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울음(공의)의 선포와 그것을 통해 드러난 죄에 대한 용서(자비)가 하나 된 역사가 십자가 외에 또 있겠습니까. 2000년 전 고대 기독교는 이러한 본질적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지금 동독인과 서독인 사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이질감을 가졌던 유대인과 헬라인을 하나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계속>

변호사(황경태)와 농부(홍윤선), CEO(추광재)와 사회학도(최규동) 등 네 명의 크리스천 남성 청년들이 유럽 곳곳을 탐방하며 살아있는 공동체 영성을 찾아나선 여행기, 「워키토키 유럽(Walkie Talkie Europe-이담복스)의 저자들이 신앙의 '본류를 찾아 떠났던 그 소중한 경험을 본지에 연재합니다.

## 신앙과가정

###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전서 16: 10-24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전 16:14)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요일 4:16)”  
그 사랑의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고 말씀합니다.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신 6:5)”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전 인

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촉구합니다.  
66권의 성경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만나는 두 선(선) 중 수직선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을, 수평선은 이웃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인생에서 사랑을 제외한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인생 - 사랑 = 0입니다. 인생에서 사랑을 빼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서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중요성을 충분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다시 한 번 사랑으로 행하라고 당부하는

이유는, 그가 고린도교회의 분쟁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일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일보다 앞서야 합니다.  
에리히 프롬은 사랑을 다섯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먼저, 사랑은 관심 갖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또한, 사랑은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서로 관심 갖고 존중하며, 이해하고 책임지며, 주면서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창골산 봉독사

## 향유육합

### 의식주만으로 해결될 수 없기에

산마루에서는 토요일마다 쪽방촌 선교를 한다. 우선 20가정 타깃을 정해서 집중하여 돌본다. 무작위 익명의 사람들 다수를 자선하듯 도시락이나 생필품을 전달하는 것으로는 진정한 위로와 치료와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섬기는 일은 담당 교역자를 정하고 과거 노숙했다가 벗어난 이들이 나서서 돌보는 구조를 만들어 정착시키고 있다. 나는 공동체 일로 매주 참여하기 어렵다 생각했으나 3주째 연속하여 섬길 수밖에 없게 되었다.  
마지막 번째 쪽방, 철순 지난 형제님을 만났는데 10년 전부터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한 지경이 되어있었다. 대소변도 때로는 가리기 어려워 기저귀를 차고 지내신다. 심신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어두운 방에는 지린내가 코끝을 파고 든다. 번기는 싱크대와 함께 붙어 있다. 그것도 두 집에서 사용한다. 도시락을 전하고, 그 노인과 대화 중 “내가 이렇게 더 살아서 무엇하겠습니까? 빨리 죽어버리면 좋겠다”고 깊은 탄식을 반복하는 것이었다. 도시락과 의식주가 해결된다고 하



여 해결될 일이 아니다. 안타까워 중보기도를 하고 있지만 직접 기도를 해야만 해서 매주 찾게 되었다. 내 마음을 사로잡는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행 3:6)  
결국은 인간의 근본 문제와 그 해결책은 영혼의 문제요 이를 위하여 주를 영접하고 영혼이 구원 받고 천국을 얻으며 치유된 새 삶을 살도록 기도하는 일이다.

〈산마루서신 <http://www.sanletter.net>〉은 이 땅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혼들과의 영적인 대화이며, 진실한 만남이며, 사랑의 소통입니다. 참된 삶을 구하는 모든 영혼들과의 진실한 주님 안에서의 대화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안전동화 시리즈 | 해와 달 편

# 위급한 순간의 생명을 안전띠

안전띠 미착용 시 사망률은 4배 이상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띠,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 “찬양으로 승리를 선포하라” II (역대하 20장 13~30절)



이준원 목사

<전편에 이어서>

## 2. 강력한 영적 무기인 찬양

찬양은 기도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영적 무기이자 사탄의 역사를 막는 영적 보호막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인 찬양,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는 찬양이 불리게 되면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묵인 자가 놓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탄은 찬양으로 충만한 사람과 가정과 교회와 목장을 결코 해치지 못합니다.

혹시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찬양 곡을 틀어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같이 기도하며 뜨겁게 찬양하면 됩니다. 찬양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는 동시에, 마귀를 공격하여 무찌르는 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20장을 보면, 경건한 유다 왕 여호사밧이 무기가 아닌 찬양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객관적인 전력이나 숫자로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많은 모압과 암몬의 대군이 연합군으로 공격해오는데, 마온 사람들(또는 세일 사람들, 즉 에돔)과 같이 읊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선포합니다(3). 이에 유다 사람들은 모든 성읍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와서 함께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를 데리고 여호와 앞에 섰더라” (13절)

여기에 보면 남자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내들과 자녀들, 심지어 어린이들까지도 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께 왕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중에 회중 가운데 있던 아하시엘이라는 레위인에게 성령

이 임하면서 그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매” (15-17절)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라고 하시고(15),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17)라고 하십니다. 이에 온 유다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를 드리며 큰소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앞도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릇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18-19절)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백성들은 모두 일찍 일어나서, 이때 여호사밧이 뭐라고 합니까?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아들로 나가니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라” (20절)

이 여호사밧의 선포를 보십시오. ‘주님을 믿어야

만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신뢰하면 반드시 이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는데, 놀랍게도 최선봉에 전투부대가 아니라 찬양대를 세우고 나아갑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21절)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맨 앞에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것은 여호사밧 개인이 왕의 체면 때문에 혼자 각기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과 함께 의논한 다음 그렇게 했습니다. 뭘 의논했습니까? 어떻게 할까를 의논했겠지만, 다 함께 기도하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엘을 통해 이미 주신 말씀대로 “너희는 싸울 것도 없다. 내가 하는 것을 따라”라고 하신 것을 어떻게 불지 의논한 겁니까?

그래서 찬양대를 앞세우기로 함께 결정한 것입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며 행진하게 합니다. 군대도 싸우러 나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주실지 보러 나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길 거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쟁사에 전무후무한 진형입니다. 그런데 찬양만 하고 나가면 다 이긴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전쟁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때만큼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을 직접 이기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나가서 본 겁니다. 그런데 그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사기셔서 적들을 치게 하십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 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죽였더라” (22-23절)

분명히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하려 왔는데, 그들이 먼저 세일 산 즉 에돔 사람들을 쳐 죽이더니 그 다음에는 암몬과 모압이 서로를 쳐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적군은 결국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믿기 어려운 승리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유다 백성은 싸울 필요도 없었고 승리를 주시는 것을 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순종한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다시 보면,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적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결국 찬양은 영적 전쟁의 결정적인 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부터 마귀는 두려워 떠나게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아직 움직이지 않으셨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칭찬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합치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고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상황에 집중하는데, 그렇게 되면 낙심하며 절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찬양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를 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적군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적이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엄청난 무기가 갖고 있는가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

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주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25-26절)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3일 동안 엄청난 양의 전리품을 거두어들입니다.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브라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집회를 가진 다음, 예루살렘 성전까지 개신 행진을 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와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와 전에 나아가니라” (27-28절)

이 놀라운 기적의 승리에 대한 소문은 사방 모든 나라들로 순식간에 퍼지게 되고, 주변 나라들은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29절)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감히 유다를 향해 군사적 도발을 할 생각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남은 통치기간 동안 국방을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라” (30절) <계속> 콜럼버스한인장로교회 이준원 목사

## 성경이 말하는 헌금의 정의, 용도, 원리 I

헌금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는 돈을 받고 다니는데 교회는 돈을 내고 다니는다고 말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그 말에는 교회에 내는 헌금이 회비나 세금과 같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헌금의 정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머릿속에 헌금을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들이 많습니. 성경에서 주로 헌금이 어느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살펴볼 것을 원합니다. 또한 헌금을 어떤 원리를 통해 드려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을 원합니다.

첫째, 헌금은 교회에 내는 회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물입니다.



조정연 목사

둘째, 헌금은 내가 생각하는 용도에 따라 쓰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주된 용도가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 원리대로 드려져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나의 재물을 이웃들에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 쓰면 되지 왜 굳이 교회에 내야 하는가, 왜 헌금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오

늘의 주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에 내는 헌금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필요를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과부를 돌볼 것을 말하면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딤후 5:8)”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머니를 도울 수 없는 상황에서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고 하면서 맡기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눅 16:9)”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바로 직

전에 하신 말씀이 “네 이웃을 네 몸과 사랑하라”였고 비유 바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와 같이 하라”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로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국가가 요구하는 것들에 충성스럽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눅 13:7)” 우리가 가진 것으로 국가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영역,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영역이 교회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고 많은 이들이 모이게 되자 교회 안에는 많은 필요가 생겼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 주며(행 2:44-45)”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집사를 세워서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성도들을 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들과 교회를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우리의 재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가정의 필요에 모든 것을 공급하고 이웃이나 국가, 교회의 필요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있습니다. 이웃과 지역사회 또는 교회에 재물을 모두 갖다 바쳐서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뉴스에서 보기도 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균형있게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맡겨주신 재물을 충성스럽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유평교회 조정연 목사

# 나랑 가까워서 좋고 나를 잘 알아서 좋은 우리동네 좋은 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e음” 앱에서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를 확인하세요



# 러시아 출신 교포, 한일장신대에 후원금 기부

### 30년 전 은혜 깊은 피아니스트 김 스베틀라나씨

한일장신대학교(총장 배성찬)에서 공부한 러시아 출신 교포 3세인 김 스베틀라나(한국명 김라나) 씨가 대학 후원금을 전달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김 씨는 한일장신대의 발전을 위해 후원금을 기증하기 위해 이은희 교수(전북대 음악과)에게 요청했으며, 이를 통해 지난달 30일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김 씨는 故 김용복 총장이 아시아의 목회자와 해외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신학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한 아시아선교센터(AMC) 입학허가를 받아 93년부터 2년간 한일장신대에서 수학한 인연이 있다. 한일장신대 총장 명의의 초청장으로 유학 허가를 받아 "할머니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첫 꿈을 이룬 것이다.

러시아 하바로브스크 출생의 김씨는 러시아 국립 하바로브스크 음대를 졸업하고 러시아 국립 노보시비르스크 음대를 수석졸업한 피아니스트다. 글라카 국립음악원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피아노 교수 자격을 획득했으며,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우수한 제자들을 배출한 지나 슈프추크(Dina Shevchuk) 교수를 사사했다. 90년대 초 러시아 필하모닉공연단과 함

께 서울과 대구 등의 대형교회에서 열린 공연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 김 씨는 전주에서 우연히 만난 이 교수의 부친 故 이종안 목사에게 한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싶다는 뜻을 말하자 이 목사가 김 총장에게 추천했다. 우수한 인재물 알아본 김 총장은 초청장을 보냈고, 김씨는 한일장신대에서 공부한 것을 시작으로 한국에서 정착하게 됐다.

김 씨는 첫 번째 고향인 러시아에 살고 있던 부모를 한국으로 초청했고 두 번째 고향 한국의 아산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10년째 매주 서울 수정교회에서 피아노반주와 오르간 성가대 반주를 하고 있다. 현재 전안의 음악임시전문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경찰 등 수사팀에 러시아 통역봉사도 하고 있다.

김 씨는 감사인사를 담은 동영상 이 교수를 통해 보내왔다. 이 교수는 "한일장신대를 연결해준 아버지에게 매해 감사인사를 해온 예언마르크 재능있는 사람"이라며 "한일장신대에도 작지만 감사인사를 꼭 하고 싶다고 해서 후원하게 됐고, 오고 싶었지만 최근 다리를 다쳐 함께 오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피아니스트 김 스베틀라나씨가 한일장신대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한일장신대

김 씨는 "한일장신대의 초청을 받아 한국에 올 수 있었고 한일신학교(한일장신대 전신)에서 여러 외국 목사님들과 공부할 수 있었다. 비록 신학공부를 끝내지 못하고 전공인 피아노로 계속 공부했지만 시간이 지나 교회에서 성경을 배울 때 한 일에서 가르치신 교수님을 생각이 많이 났다"며 "저를 초청해주신 김용복 총장님과 신학공부를 강조하신 주방란 교수님 등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고 했다.

또한 "한일은 우리 가족을 할머니 나라에서 정착할 수 있게 해주셨다"며 "그동안 '영적 가족인 한일'에 대한 감사함과 미안함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후원금을 전달할 수 있게 돼 너무 행복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 씨는 "나중에 몸이 완쾌되면 꼭 찾

아뵈겠다"며 "항상 한일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배성찬 총장은 김씨의 통화에서 "이종안 목사님과 이교수님을 통해 인연을 맺은 한 알의 밀알이 자라나 열매를 맺고 다시 그 씨앗이 한일에 심어지게 됐다"며 "학교를 기억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귀한 후원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신 후원금은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데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또, 배 총장은 이 교수에게 전북지역의 유일한 신학대학인 한일장신대를 돕는 마음으로 매월 후원하겠다는 말을 전했다.

한편, 금년새 지휘자와의 공연을 비롯해 국회 송년음악회, 러시아 대통령 방한 환영독주회 등 여러 공연을 펼쳤고, 극동러시아문화정보 콩쿠르 심사위원, 한국필하모닉오케스트라 피아노콩쿠르 심사위원, 세계피아노급수학회 회원 등을 역임했다. 명지대 사회교육원, 세종대 사회교육원, 안양예고, 계원예고에 출강했으며, 이태리 Como Academy 등 어시스턴트로서 테크닉 레슨을 가르친 한신마이히츠클, 안미환-김종만 등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한 제자들을 길러냈다. 또 한일장신대학교를 위해 찬송가 전체를 녹음한 CD가 아마존을 통해 전 세계에 판매되고 있다. 장지동 기자

# 서울신대, 봄학기 한국어교육원 K-POP 문화 프로그램 진행

### 베트남과 태국 유학생 50여 명 참여

서울신대학교(황덕형 총장) 한국어교육원이 지난달 26일 오후 1시에 서울신대학교 성결인의 집 존토마스홀에서 '2024학년도 봄학기 한국어교육원 K-POP 문화 프로그램'이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베트남친구들 선교회와 합동댄스 선교단 멘토크루의 협력 아래 진행되었으며, 베트남과 태국에서 온 유학생 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K-pop 음악과 댄스를 체험하고,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2024학년도 봄학기 한국어교육원 K-POP 문화 프로그램 참석자 기념 사진. ©서울신대

또한, 기독교 연극 공연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구원의 역사를 손쉽게 전달하고, 기독교 가치를 이해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로써 참석자들은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한국어를 습득하고 기독교의 복음을 체험할 수 있었다.

개회사에서 황덕형 총장은 "문화프로그래를 통해 한국 문화와 기독교 가치를 이해하여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길 기대한다"며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을 통해 참가자들은 K-pop 음악과 댄스를 체험하고,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장지동 기자

##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5:00	00 CTS 새벽예배 40 힐링송 50 신앙예배	40 힐링스토리 50 생명양식 - 데일리큐티-	00 생명의 삶 20 바이블 프로젝트 (구약) 30 은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TV 설교/강남성결교회 정인교 목사 30 TV 설교/서울은혜교회 김태규 목사	40 김병삼 목사의 매일만나 365 (주님은 나의 최고봉)
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이지훈 목사(대구범어교회) 30 생명의 말씀-김형준 목사(동안교회)	00 365 새벽기도 생방송 2부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GOODTV 뉴스	10 [말씀] 유관재 목사(성광교회) 50 [말씀] 이재훈 목사(은누리교회)	00 TV 설교/생명의 양식/서산성결교회 김형배 목사 30 주만찬 50 잘 믿고 잘 사는 법	00 생방송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오직주님) 명성의 위임
7:00	00 CTS 뉴스 20 생명의 말씀-권오규 목사(계산제일교회) 50 생명의 말씀-김원태 목사(수지구림교회)	10 힐링스토리 20 말씀의 생터 수원순복음교회 이요한 목사 50 비전설교 대한교회 윤영민 목사	30 영적성장의 도구 애너그램 5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1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 30 TV 설교/한소광교회(유영모 목사)	40 배진기 목사의 생수의 강 50 노변담화
오전 8:00	20 신앙예배 30 [워킹온다바이블] 성지탐방 50 CTS아침찬양	20 세상을 깨우는 말씀 훈민복음 50 러브미션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한기재 목사(중앙성결교회)	20 CBS성서학당:느헤미야 9강 - 김홍규 목사 "청령하나 각박하지 않고" (본문 - 느 5:14-19)	00 복음강단 - 에버그린교회 김학필 목사 30 말씀의 창 - 순복음진주초대교회 이경은 목사
9:00	00 다시보는 내가 매일 기쁘게 50 말씀노트	20 마커스워십 50 힐링송	00 [삶&가정] 기아코 성공에 내는 자녀들의 비밀 40 Q&A 107 소요리문답 50 구약의 세계로 (오십소)2	10 새롭게 하소서	00 우리함께 찬양해 40 다시보는 성지가 좋다
10:00	00 CTS선교방송 아주 특별한 찬양 50 7000마라톤 - 예수사랑여기에	00 말씀의 생터 아델포이교회 임동현 목사 30 말씀의 생터 솔로몬교회 홍성익 목사	20 어메이징 그라이스	00 잘 믿고 잘 사는 법 20 목사님 공명해 40 CBS 뉴스	00 힐링토크 회복 50 김윤희 목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11:00	50 [생방송] CTS 뉴스	00 명사들의 명강 30 말씀의 생터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	00 [말씀] 윤만선 목사(은혜샘물교회) 4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50 영적성장의 도구 애너그램	00 율포원	00 새에덴교회 부활절 칸타타 3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 50 말씀의 창 - 포항동부교회 김영걸 목사
12:00	30 생명의 말씀-김종원 목사(경남중앙교회)	00 GOODTV 뉴스 20 힐링스토리 30 말씀의 생터 전주바울교회 신현모 목사	10 바이블 프로젝트 (구약) 20 [말씀] 마크 최 목사(뉴저지은누리교회)	00 TV 설교/오병이여교회 권영구 목사 30 TV 설교/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20 복음강단 - 신촌성결교회 박노훈 목사 50 우리함께 찬양해
13:00	00 생명의 말씀-김성근 목사(동성교회) 30 신앙예배 40 인생을 바꾸는 7분 - 예수가 길이다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00 말씀의 생터 예성교회 김기남 목사 30 세상을 보는 창 오색오감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 20 [말씀] 양준길 목사(필그림선교교회)	20 다니엘 기도회	30 2024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
14:00	00 [생방송] 콜링갓 50 내가 매일 기쁘게	00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30 문방구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최원준 목사(안양제일교회)	00 TV 설교/[말씀의 힘] 우면동교회 정준경 목사 30 새롭게 하소서	00 백석의 생터
오후 15:00	40 7000마라톤 - 예수사랑여기에	00 생방송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곰	00 [말씀] 최영욱 목사(또감사선교교회) 40 생명의 삶	20 명혼의 양식/송암교회 김정근 목사 30 TV 설교/빛나는교회 서학복 목사	00 C채널 스페셜 30 C채널 스페셜
16:00	30 생명의 말씀-박노훈 목사(신촌성결교회)	00 말씀의 생터 소성교회 강복열 목사 30 말씀의 생터 대구동신교회 문대원 목사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영문) 20 크리스천의 슬기로운 직장생활 40 Q&A 107 소요리문답 50 [말씀] 김형익 목사(맨살롬교회)	00 CBS성서학당:말왕기서 16강 - 김기성 목사 "아버야, 아사, 나답의 통치" (본문 - 왕상 15:1-32) 50 CBS비전특강/CBS 비전특강	00 이서 목사의 잃어버린 복음을 찾아서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17:00	00 생명의 말씀-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50 빛으로 소망으로	00 말씀의 생터 한신교회 강용규 목사 30 김대성 목사와 함께하는 기도순례대행전 부흥회	30 [말씀] 최병력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	40 CBS 교회소식 5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00 말씀의 창 - 한빛교회 김진우 목사 30 말씀의 창 - 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 전태식 목사
18:00	00 생명의 말씀-김대성 목사(소명중앙교회) 30 말씀노트 40 TV찬양예배 - 만나교회-	00 비전설교 대전태평교회 한상현 목사 25 말씀의 생터 한중사랑교회 서경희 목사	10 2023 KGMLF 50 바울로부터	10 더 콜링 : 부르심에 소명 30 TV 설교/산위인마을교회 김영준 목사	2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30 말씀의 창 - 엘드교회 양병재 목사
19:00	30 2023 다니엘기도회	00 이영훈 목사의 성령님과 함께	30 바울로부터	20 이 땅을 사랑한 예수의 증인들 30 TV 설교/[말씀의 힘]두란노교회 이상문 목사	00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 차츰 30 스페셜 (오직주님) 명성의 위임
20:00	20 오정현 목사의 비전목상 3분 미라클 30 생명의 말씀-장찬영 목사(강남중앙교회)	00 명사들의 명강 30 여주봉 목사의 회복과 부흥으로 가는 길	00 어메이징 그라이스 4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00 성서 700 도시여행/성서 700 40 잘 믿고 잘 사는 법	10 비전메시지 - 기쁨의교회 박진석 목사 40 복음강단 - 새은혜교회 황영택 목사
21:00	00 CTS 뉴스 40 내가 매일 기쁘게	00 세상을 깨우는 말씀 훈민복음 30 백석대학교 장종현 총장 칼럼 40 힐링스토리 50 GOODTV 뉴스	00 갈보리교회 주일예배	00 CBS성서학당:느헤미야 9강 - 김홍규 목사 "청령하나 각박하지 않고" (본문 - 느 5:14-19) 50 CBS 뉴스	10 나의 십자가 : 세계의 십자가가 나의 결로 30 삶의 씨앗이 되는 씨(Cseed)워드
22:00	30 다시보는 내가 매일 기쁘게	10 아버지 나의 아버지	1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20 바울로부터	1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	00 CBN 크리스천 월드뉴스 20 새에덴교회 부활절 칸타타
23:00	20 CTS두란노 성경교실 50 신앙예배	10 2023 다니엘기도회	00 R.T. 캔달의 말씀과 성령 30 생명의 삶 50 바이블 프로젝트 (구약)	10 성경꿀팁 20 잘 믿고 잘 사는 법 4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	00 복음의 빛을 사랑의 빛으로 40 리버티 워십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24:00	00 콜링갓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00 예배실황 광림교회 김정석 목사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	00 CBS 아카데미 숲 50 살롱 썰렁	00 서재의 재발견 2
1:00	00 하나님의 음성 30 최일도 목사의 인생사진관	00 일대일 양육모임 30 스킵브래너 목사의 십자가의 영광	00 [말씀] 김우성 목사(영광교회) 40 [말씀] 도지원 목사(예수비전교회)	00 다니엘 기도회 40 TV 설교/[말씀의 능력] 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 전태식 목사	00 말씀의 창 - 하나교회 이학근 목사
2:00	20 힐링스토리 30 CTS찬양의 찬양	00 명설교 충신교회 박중순 목사 30 명사들의 명강	20 [말씀]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	30 TV 설교/용인산성교회 이태희 목사	00 말씀의 창 - 컨스정교회 김성국 목사 40 김병삼 목사의 매일만나 365 (주님은 나의 최고봉)
3:00	00 7000마라톤 - 예수사랑여기에 50 리버티즈 헤리티지	00 GOODTV 특별간증	00 [Global Sermon] R.T. Kendall's Word & Spirit 30 [말씀]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00 율포원	00 선교는 저금 2
4:00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 20 오늘의 양식 30 TV새벽예배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 30 새벽을 깨우는 말씀 영안장로교회 양병희 목사 55 365 새벽기도 생방송 1부	10 [말씀] 황성은 목사(창동영광교회)	00 CBS성서학당:갈릴리 산책 44강 - 조성욱 목사 "예수님과 물고기" (본문 - 마 4:1-13) 50 CBS 교회소식	00 다시보는 성지가 좋다 20 성지가 좋다 50 힐링토크 회복



# OPEN Hana Infinity Seoul

국내를 넘어 **글로벌 No.1**으로 도약하는 **뉴하나 딜링룸**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본 홍보물은 2024년 5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광고-02488호(2024.04.01) / CC브랜드 240401-0017